

## 省谷과 政治

——주로 政治家로서의 그의 片貌——

金 舜 坤

◊ 目 次 ◊

- I. 序 論
- II. 自由黨政權下의 省谷과 政治
- III. 軍事革命政權下의 省谷과 政治
- IV. 民主共和黨政權下의 省谷과 政治
- V. 結 語

### I. 序 論

1975년 2월 25일은 省谷이 향년 63세로 타계한 날이다. 그는 많은 한을 남기고 떠난 셈이다. 그러나 그가 남긴 업적들은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政界와 財界는 말할 것도 없고, 言論·敎育·體育·文化·學術分野에서도 말이다.

그렇기에 「省谷을 알고 지내던 모든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는 그릇이 크고 다재다능하여 大人の 풍도를 지녔으며, 풍부한 휴머와 쾌활한 성격으로 뜻사람의 흠토와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인물」<sup>1)</sup>로 평가되는지도 모른다. 당시의 야당정치인들도 그에 대한 평가는 거의 같다. 高興門씨는 말하기를, “성곡과 나의 만남은 정치를 통해서였지만, 나는 정치인으로 기억하기에 앞서 매우

1) 金容完 「多方面에 超人的 能力 발휘」, 『별고 없제—省谷 金成坤先生 逸話集』, 省谷傳記刊行委員會, 1985년 172면.

思量이 깊고 인간미가 넘치는 통 큰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 豪放하다고 표현해야 옳을까, 아니면 그냥 巨物이라고 말해야 옳을까, 좋은 표현을 찾기 힘들만큼 그는 나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 주었다. 그래서 나는 그냥 그릇이 큰 사람, 말하자면 大器라고 말하고 싶다”<sup>2)</sup>고 한다. 金泳三씨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省谷 金成坤 선생은 政界에서, 財界에서 그리고 言論界에서 폭넓은 활동을 했다. 드물게 많은 일을 한 분이다. 선생이 나에게 비친 뚜렷한 인상은 포옹력과 후덕한 人間味였다”<sup>3)</sup>고 한다.

이러한 성격이 재계와 언론계로부터 政界에 뛰어든 것은 1958년의 일이었다. 그는 5월 2일 自由黨 후보로서 慶北 達城에서 제4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던 것이다. 4·19와 5·16으로 정치적 시련을 겪었던 그는 한 때 정계를 떠나는 듯 했다. 그러나 1963년 10월 29일에는 또다시 民主共和黨에 영입되어 1971년 10월 5일 공화당을 탈당할 때까지 약 13년간 議政史에 많은 족적을 남겼다.

이렇듯 성격은 다재다능하여 그 활동도 다양한 편이었다. 그러나 필자에게 주어진 과제가 「省谷과 政治」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에 초점을 맞추어 자료를 정리해 볼 뿐이다.

## II. 自由黨政權下의 省谷과 政治

政界에 투신하기 직전의 省谷은 이미 財界에서 言論界에서 두각을 나타낼 정도로 탄탄한 기반을 닦아 놓고 있었다. 즉, 1953년 8월 20일 高麗火災海上保險 取締役社長(1947년 6월 29일 대구에서 발기인대회 참가), 동년 11월 25일 東洋通信 代表取締役社長(1952년 3월 10일 창간작업 착수), 1954년 3월 20일 聯合新聞인수, 1954년 7월 31일 金星產業株式會社 설립, 동년 12월에는 UNKRA 資金 등에

2) 高興門 「梗概政局은 省谷이 있어야」, 前揭『逸話集』141면.

3) 金泳三 「議會政治의 信奉者」, 前揭『逸話集』, 168면.

협업에 방적기 3만여 추 직기 25대의 金星紡織(1948년 10월 5일 설립)을 再建, 1956년 3월 太平紡織·亞洲紡織 인수 등이었다. 실로 이러한 모든 일들은 역사적인 休戰協定이 조인되었던 1953년 7월 27일부터 불과 3년 동안의 일이었다.

이러한 省谷에게 李起鵬 國會議長은 1958년 5월 2일의 總選에 自由黨 候補로 출마할 것을 권유하였다. 李議長은 政敵관계에 있던 族青系의 거물 李載瀅씨를 꺾기 위해 그의 선거구인 安養에 紡織工場을 갖고 있는 성곡이 始興郡에서 출마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성곡은 李載瀅씨와의 대결을 거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성곡은 工場을 再建할 때 商工部長官이었던 李載瀅씨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종업원을 선거에 이용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 대신 省谷은 고향인 慶北 達城쪽의 공천을 회당했다. 達城은 야당의 거물 曹在千의원이 그동안 출곧 지켜왔으나, 4대 民議員 선거 때부터 마침 大邱로 선거구를 옮기게 되어 일종의 공백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리하여 달성에서 공천을 받은 성곡은 해외유학을 마치고 갓 돌아온 民主黨 朴浚圭 후보와 대결하게 되었다. 선서 결과는 성곡의 압승이었다. 성곡이 23,518표를 얻은데 반하여 朴浚圭 후보는 8,805표에 불과했다. 선거기간 중 朴후보가 親喪을 당하기도 했지만, 예상 밖의 성곡에 대한 지지였다. 이리하여 야당의 아성이었던 達城에서 처음으로 여당국회의원이 탄생하였다.

6월 7일 제4대 국회의 개원과 함께 政界에 첫발을 내디딘 省谷은 국회 外務委와 豫算決算委員會에 배정되었으며, 자유당 중앙당상임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초선의원으로서는 드물게 보는 중책이었다. 이에 따라 성곡은 7월 1일 자로 金星紡織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회사를 전문경영인에게 맡겼다. 그리고 그는 매일 국회 豫算委에 나가 정부가 제출한 追更豫算案의 심의에 열중했다. 그 무렵 民主黨에서 때마침 「產業銀行 連繫資金 貸付事件 真相규명안」을 제출하여 與野間에의 공방전이 밤낮없이 계속되었다.<sup>4)</sup> 대출과 관련된 국회

의원은 물론 성곡 한 사람 뿐이었다.

그래서 省谷은 8월 11일 밤 豫決委에서 이에 대한 해명을 겸한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다. 그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실례말씀입니다 만 내 자신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얘기인데, 백수건달이 아니면 할 일 없는 사람이나 할일”이라고, 다소 폭탄적인 발언을 했다. 물론 성곡의 그 진의는 하찮은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대립되어 시간만 낭비하고 있으니, 예산안의 검토와 국사의 건설적인 토론은 언제하겠느냐는 뜻이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예상외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豫決委에서 劉沃祐, 嚴祥燮의원 등이 홍분하여 발언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는가 하면, 다음날 도하의 각 신문은 「백수건달」 사건을 대서 특필로 보도했다. 결국 이 사건은 얼마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 해명으로 오해가 풀렸지만, 이는 政治人으로서의 성곡의 한 면모를 보여준 것이었다.

그 후 성곡은 자유당에서 차츰 소외되기 시작했고, 특히 「서대문 경무대」로부터는 不忠에 따른 노골적인 공격을 받게 되었다. 그것은 성곡이 출발부터 始興郡 출마요청을 거절했고, 「백수건달」 발언으로 국회 운영에 파문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聯合新聞이 정부의 모든 정책을 是是非非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聯合新聞은 「죽으나 사나 결판내자」라는 구호의 民主黨 광고를 게재했고, 3·15 부정선거의 항의 현장을 사실대로 알렸으며, 馬山에서 최루탄이 얼굴에 박힌 채 죽은 金朱烈군의 사진을 國際新報로부터 긴급 인수하여 中央紙로서는 맨 먼저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것이다. 그러자 李起鵬국회의장은 성곡을 半島호텔로 불러 10여명의 自由黨 당무의원들이 보는 앞에서 詛問을 했으며, 聯合新聞을 내놓으라는 협박과 함께 治安局에서

4) 「產業銀行 連繫資金 貸付事件」이란 產業銀行이 선거 직전에 基幹產業이나 國策會社가 아닌 업체까지 포함한 10여개 회사에 39억환을 긴급 대부해 줌으로써, 이의 일부가 政治資金으로 유용되었다는 사건이었다. 金星紡織도 3월 말 쯤 산업은행의 連繫資金 2억환을 대부받아 대형 發電機를 구입하고 창고, 울타리, 석당, 기숙사 등의 건축에 쓴일이 있었다. 그러나 政治資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는 金星紡織의 帳簿일체를 압수하여 기업사찰까지 했다.<sup>5)</sup>

여러가지 곤욕을 치른 성곡은 정치에 환멸을 느끼게 되었고, 자신이 자유당의 舉手機 노릇을 해야 한다는 처지에 자책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 이리하여 그는 정치보다 言論이나 育英事業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러한 차에 드디어 1960년 4·19가 터졌다. 서울신문사, 반공연맹 청년단본부, 李起鵬, 崔仁圭씨 집 등이 차례로 불탔다. 이 때 뜻밖에도 高大生들은 남대문 聯合新聞社와 성곡의 신문로 자택을 자발적으로 찾아와 보호해 주었다. 흥분한 관중들이 玉石을 구분하지 않고 행동할까봐 대표들이 미리 보호해 준 것이다.

마침내 4월 25일에는 교수들이 계엄령이 선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거리로 나섰다. 이렇게 되자 서울은 또 다시 학생과 시민들의 데모로 소용돌이 치기 시작했다. 성곡은 이제 자유당 정권이 막다른 골목에 왔다고 판단했다. 그는 聯合新聞 편집국 간부들과 의논하여 李承晚 대통령의 下野를 권고하는 사설을 실기도 했다. 당시의 野黨紙들은 아직도 「正副統領의 선거를 다시 하라」고 주장할 정도였다. 「4월 혁명」으로 국회가 해산되고 7월 29일에는 또다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때 선거구민들의 5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달라는 종용이 있었다. 그러나 성곡은 이를 거절했다. 新·舊派로 갈라진 복잡한 당내 사정 때문에 민주당측에서 성곡에 대한 출마요청이 있었지만 응하지 않았다. 정치에서 벗어난 성곡은 홀가분한 몸으로 민간외교와 언론 등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기업인은 민간외교에 힘써야 한다고 하던 그는 韓越協會長, 韓伊協會長, 慶北體育會長(연임), 大韓柔道會長 등에 피선되었다. 1960년 말 취리히에서 개최된 IPI 이사회에 참석하여 그는 한국의 국가단위 가입승인을 받아냈고, 이듬해 2월 10일에는 IPI 正會員으로 되었다.

---

5) 前揭「逸話集」, 66~67면.

### III. 軍事革命政府時節의 省谷과 政治

주지하는 바와 같이 軍事革命이 일어 난 것은 1961년 5월 16일이었다. 당시의 省谷의 심경은 헤아릴 수 없으나, 그는 5월 26일 텔하비브에서 개최된 제10차 IPI 총회에 참석했고, 10월 24일에는 UPI 업무 차 도일했다가 11월 13일에 귀국했다. 그동안 기업의 생리를 이해하게 된 군사정부는 國家經濟發展의 견인차가 될 企業과 企業人에 대한 압박을 끓는 대신 새로운 종목의 건설적인 사업을 하나씩 맡아하도록 권장하고 있었다. 이에 金星紡織의 일부 경영진은 비료공장의 추진을 건의했으나 성곡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金星紡織이 이미 소유하고 있었던 석회석 鐳區를 개발하여 산업건설과 국토개발의 기초자재인 시멘트工場을 건설하는 것이 장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리하여 1961년 12월 31일 聯合新聞社가 문을 닫던 날 雙龍洋灰工業株式會社의 발기인총회가 열렸다. 1962년 5월 12일 성곡은 제11차 파리 IPI 총회에 참석차 떠났지만, 예정대로 5월 14일 정식으로 회사가 설립되고, 사장에는 洪在善씨가 취임했다. 물론 공장 건설에 소요되는 内外資를 조달해 준 것은 성곡이었다.<sup>6)</sup>

1963년 1월 21일 성곡은 또다시 高麗火災와 서울火災保險을 흡수·합병하여 사세를 확장했다. 성곡은 5월 4일 西獨政府의 초청을 받아 출국해야만 했다. 5월 17일에는 西베르린 市長을 방문했고, 6월 5일에는 제12차 스톡홀름 IPI 총회에 참석했다. 그리고 미국에 있던 둘째 딸의 결혼식에 참석한 후 한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그때 서울에서 급거 귀국하라는 연락이 왔다. 2년 6개월의 軍政을 끝내고 民政移讓을 위한 11월의 국회의원 선거에 民主共和黨 후보로 達城·高靈 地區에서 출마하라는 것이었다. 공화당은 院內 안정세력을

6) 雙龍洋灰는 1962년 9월 17일 영월에서 연산 40만톤의 쌍용공장의 기공식을 갖고, 서독 훙볼트의 기술협조 아래 최신 시설의 시멘트공장을 건립하기 시작했다.

구축하기 위해 당선이 확실시되는 인사를 선별하여 입당교섭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성곡에게 당장 귀국하든지 아니면 몇 해 동안 돌아오지 말든지 하라는 강압적인 전언이었다.

이리하여 성곡은 10월 24일에 귀국했다. 그는 귀국하자 마자 공항에서 최고회의로 직행하여 朴正熙의 장과 두 시간 가까운 멀담을 나누었다. 회담이 끝난 뒤 신문로 자택으로 가는 차속에서 성곡은 “어쩔 수 없구나, 그 분의 굳은 신념에 탄복했다.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면 개인은 희생할 수도 있지 않겠어?”라고 말하면서 심경의 변화를 간단히 피력했다.<sup>7)</sup>

다시는 정치에 손대지 않겠다고 하던 그였지만, 그때 기왕에 다시 정치를 할 바에야 자유당 때와는 달리 권력의 중심부에 참여하여 제대로 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성곡은 10월 29일 공화당에 입당했고, 11월 1일 공천을 받아, 3일에 입후보 등록을 마침으로서 그의 정치활동은 재개되었다.

#### IV. 民主共和黨時節의 省谷과 政治

1963년 10월 15일의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은 예상외로 엄청난 고전을 했다. 따라서 제6대 국회의원 선거도 낙관할 수 없다 하여 공화당은 總力戰을 펴고 있었다. 그러나 省谷에게는 어려운 선거가 아니었다. 뒤늦게 입후보하여 선거운동 기간이 짧았지만, 11월 26일의 선거결과는 낙승이었다. 성곡이 44,674표를 얻은데 비해 차점자인 民政黨후보 郭泰珍은 13,122표에 불과했다.

성곡이 상경했을 때, 最高會議 벼를고문인 嚴敏永씨가 찾아왔다. 제3공화국 첫 국무총리의 적임자를 물색하라는 명령을 떠고 왔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軍政의 경우 힘으로 통치가 가능했지만, 民政은 여론의 뒷받침과 민심수습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신임총리

7) 前揭『逸話集』, 70면.

는 지역 간의 조화를 이룩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湖南人이어야 하고 언론계의 협조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국민의 崇仰을 받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성곡은 覺泉 崔斗善 대한적십자 총재를 천거했다. 얼마후 嚴敏永씨는 성곡을 찾아와서 覺泉을 모시기로 했으니 협력해 달라는 것이었다. 성곡은 覺泉을 수차례 예방했으나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뿐 수락하지 않았다. 결국 朴正熙 의장이 覺泉 자택으로 찾아가 간곡히 부탁함으로써 제3공화국 초대총리에 취임하게 되었다.

12월 17일 제6대 국회의 개원과 함께 성곡은 財政經濟委員會에 배정되었다. 그러나 얼마후 金裕澤재경위원장이 부총리로 전임됨으로써 성곡이 재경위원장에 선출되었다. 당시의 財經委는 제3공화국의 의욕적인 경제정책의 추진때문에 각종 세법개정, 차관도입 등 중요한 안건이 많았고, 정책입안을 둘러싸고 여·야간의 충돌이 많았다. 성곡은 이럴 때마다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도 설득과 조정으로 쉽게 풀어나갔다. 이 무렵부터 성곡에게는 「막후 조정의 명수」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다.

1964년의 일이다. 봄부터 韓·日會談을 둘러싸고 政街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야당은 연합하여 「對日 굴욕외교반대 범국민투쟁 위원회」를 결성, 규탄 및 저지를 위한 전국유세에 나섰고, 3월 24일부터 시작된 韩·日會談반대 데모는 드디어 「6·3사태」를 낳게 했다. 이로 인해 金鍾泌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自意半·他意半」으로 해외로 떠났고, 계엄령 선포(55일간)로 사태는 겨우 수습되었다. 그런데도 성곡은 5월 29일 제13차 이스탄불에서 개최되는 IPI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터키로 떠났다. 성곡이 이태리, 미국 등지를 거쳐서 8월 29일에 귀국했을 때는 국내 사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공화당 중앙사무국의 기구가 대폭 축소됐고, 요원도 4분의 1정도로 줄었으며, 기능도 약화되어 있었다. 그리고 학생데모의 주요 원인이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에 있다는 박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공화

당은 언론규제를 위한 言論倫理委員會法을 제정(8월 2일 국회통과) 했다. 이에 전국 언론기관 및 언론단체는 언론법제정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성곡은 이같은 정부와 언론기판파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高在旭·劉鳳榮씨 등 언론계 대표와 청와대를 오가며 조정에 나섰다. 성곡은 대통령이 言論倫理法의 공포를 보류하는 대신, 언론계에서 는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조건을 제의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했다. 9월 7일 성곡은 洪鍾哲 문공부장관과 함께 高在旭, 劉鳳榮, 洪鍾仁, 崔錫采, 金圭煥, 李桓義씨 등 언론계 인사들을 대동하고 휴양차 유성에 가 있는 박대통령을 만나러 갔다. 그때 박대통령은 이미 강경한 태도로 돌변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곡의 간곡한 설득이 주효하여 대통령과 언론계 대표와의 면담이 성사되었다. 그 결과, 마침내 9월 9일 言論倫理委員會法의 시행을 보류한다는 담화가 발표되고, 이른바 「言論波動」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그러나 공화당은 즉각 의원총회를 열어 성곡을 규탄하고 나섰다. 애써 통과시킨 법을 뒤늦게 나타난 성곡이 보류시킴으로써 결국 개인의 생색만 내고 害黨行爲를 한다는 것이었다. 성곡은 이에 대해 抗辯을 하지 않았지만 죄선을 다했다고 자부했다.

1965년 4월초 東京에서 對日請求權, 교포의 법적지위 및 漁業協定에 관한 가조인이 타결되자, 4월 17일 韓·日會談반대 서울시민궐기대회가 효창운동장에서 열렸다. 기물파괴, 방화 등 과격한 데도 잇따랐다. 결국 서울지구에 衛戍令이 발동되고, 高大와 延大에 休業令이 내려졌으며, 정국은 또다시 혼미해졌다. 이에 야당은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 民政·民主 양당이 民衆黨으로 통합, 국회비준을 저지하기 위한 의원사회 등 극단적인 투쟁방법을 강구했다. 성곡은 이런 극한대립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박대통령과 朴順天·民衆黨 대표최고의원과의 면담을 적극 추진했다. 마침내 7월 20일

청와대에서 여·야 頂上會談이 실현되어 헌정질서의 유지와 극한대립의 지향 등 5개 항의 시국수습방안이 합의되었다. 이것으로서 경화일로의 대립은 돌파구를 찾게 되었다. 성곡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1967년은 선거체비로 시작하여 선거후유증으로 끝나는 소용돌이의 한해였다. 5월 3일 제6대 대통령선거에서 朴正熙 후보는 尹潽善 후보를 116만표차로 압승했다. 공화당은 원내 안정 세력의 확보가 절실한 때였다. 성곡은 6월 8일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차점자 鄭國粲(20, 754표)보다 3배가 넘는 62, 354표를 얻어 당선했다. 전반적으로 패배당한 新民黨은 6·8총선을 「부정선거」로 규정, 선거를 전면적으로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투쟁에 나섰다. 공화당도 결국 6·8 선거는 타락하고 혼탁한 분위기의 선거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선거분위기를 흐렸거나 不正을 저지른 당원들을 대거 제명했다. 뿐만 아니라 金鍾泌당의장, 李孝祥국회의장 등이 俞鎮午신민당 당수를 수차례 방문하여 협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원칙만 계속 주장할 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다. 부득이 성곡이 대야접촉의 막후교섭자로 나섰다. 그는 앞으로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에 역점을 두고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 갔다. 이리하여 11월 6일 세종호텔에서 여·야全權代表者の 첫 회담을 가진 뒤 13번째의 대좌를 거친 후 합의정定書에 서명을 하고, 11월 29일 신민당 의원들이 등원함으로써 梗塞政局을 풀었다.

1968년 6월 제1회 追更豫算案의 内國稅삭감을 놓고 여·야간에 대립이 격화되었을 때의 일이다. 성곡은 박대통령을 설득하여 豫決委의 결정을 뒤엎고, 야당의 주장대로 세액을 삭감함으로써 29일에 예산안을 단장일치로 통과시켰다. 11월 말이 되자 지난해의 합의정定書에 따라 선거법 개정의 구체적인 협상을 하게 되었다. 야당측이 파전대표의 격상을 요구하여 공화당에서는 省谷, 吉在號, 白南橪, 金振晚 등 이른바 「4人體制」로 교체되고, 신민당에서는 柳珍

山, 李載瀝, 高興門, 金泳三씨가 협상대표로 되었다. 이들은 11월 27일부터 12월 16일까지 10차례에 걸친 협장끝에 12월 29일 가까스로 회기안에 선거법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1969년은 改憲論議로 막을 올렸다. 성곡은 지속적인 정제발전과 북괴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박대통령의 연임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개헌이 논의되자 야당은 發議, 票決, 國民投票 등의 처리과정에서 단계적인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했고, 공화당에서도 黨論이 양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25일 박대통령은 개헌문제를 현정부 및 자신의 신임과 결부시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7월 29일 영빈관에서 개헌에 관한 黨論을 확정짓기 위해 의원총회가 열렸다. 이날의 회의에서 省谷, 尹致暎, 白南檉, 白斗鎮, 李秉禧, 李炳玉, 金鳳煥, 金容珣, 李賢宰의원이 개헌찬성 발언을 했고, 鄭求瑛, 申允昌, 吳學鎮, 金成嬉, 尹天柱, 金宇榮의원 등은 반대입장이나 신중론을 표명했다. 하루종일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섰으나, 저녁회의에서 李萬燮의원이 개헌을 위한 「5개항의 선행조건」<sup>8)</sup>을 제시하자 모든 의원들은 찬성과 환호를 했다. 5개 조건을 정리하여 밤 11시 30분 省谷과 張炯淳 국회부의장이 청와대로 갔다. 그러나 미리 알고 있던 박대통령은 “선행조건은 무슨 선행조건이야. 개헌에 도장을 찍으면 되지”하면서 노발대발했다. 그 후에도 이 문제를 놓고, 성곡은 박대통령과 퇴진대상이 된 두 당사자와 수차례 요담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러가지 우여곡절 끝에 8월 14일 새벽 2시반 야당이 동성하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을 피해 공화당은 국회 제3별관에서 개헌안과 국민투표법안을 可122표 불참·기권 49표로 전격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민투표가 10월 17일에 실시되었다. 개표결과 총투표율

8) 「5개 항의 선행 조건」이란 ① 정부·여당의 과감한 개편으로 創黨理念의 구현, ② 부정부패의 책임을 물어 李厚洛 비서실장과 金炳旭 중앙정보부장의 퇴진, ③ 정보기관의 정치사찰 배제, ④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⑤ 6명의 제3당의원(8·8항명 때의 5명과 金龍泰)의 복당 등이었다.

77%에 찬성 65%로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박대통령도 先行條件대로 중앙정보부장에 金桂元, 대통령비서실장에 金正廉씨로 교체했다.

1971년 4월이 되자, 성곡은 자신의 국회의원 선거보다 대통령 선거 때문에 바빴다. 신민당 대통령후보 金大中씨가 美·日·蘇·中共의 4대국 전쟁억제 보장론과 항토예비군의 폐지 등을 공약하면서 「金大中 봄」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4월 27일 개표결과 朴正熙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영남지방이 72대 28로 여당이 압승한데 반해 호남지방에서는 65대 35로 야당이 크게 리드한결로 나타났다. 만약 성곡이 심혈을 기울였던 경북지방에서 朴正熙 후보에 몰표가 없었다면 예측불허의 선거였다. 제8대 국회의원을 뽑는 5·25총선에서도 성곡은 예상대로 압승했다. 성곡이 56,751표를 얻은데 비해 차점자인 신민당후보 玄海鳳은 11,690표에 불과했다. 6월 9일 黨職 개편 때 성곡은 共和黨 中央委員會 의장에 선출되었다. 그러나 金鍾泌 내각의 출범으로 입각한 吳致成내무부장관이 취임하자 마자 업무의 능률화를 구실로 대다수 年老公務員을 감원시켰고, 군수, 시장, 경찰서장 등 지방공무원에 대한 대규모 인사선풍을 일으켰다. 결국 내무공무원들의 인사바람은 태풍의 눈이 되어 공화당내에서 큰 반발이 일어났다.

마침 신민당은 9월 30일 金鶴烈경제기획원, 吳致成 내무, 申殖秀 법무 등 세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金장관은 철정부지의 物價高로 국민생활을 토탄에 빠뜨린 책임으로, 吳장관은 實尾島·廣州團地·KAL 빌딩 난동사건으로 야기된 사회질서의 혼란과 치안공백 상태의 책임으로, 그리고 申장관은 사법파동으로 사법권의 독립과 원능을 침해하여 三權分立의 민주환경에 오점을 남겼다는 것이 해임건의안의 이유였다. 성곡은 吳致成 장관의 해임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 왔다고 판단하여 吉在號 정책위의장 등과 상의 끝에 야당에 동조하기로 했다. 물론 박대통령이 9월 30일 정부여당의 연석회의에서 “일치 단결해서 吳내무 해임건의안을 부결시키라”

고 당부했고, 이어 1일 오전에는 공화당당무위원 원내총무단 국회 상무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행동의 결속을 다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차제에 과문을 일으킨 장본인을 퇴진시키는 것이 黨과 朴총재 자신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성곡은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sup>9)</sup>

10월 2일 해임안을 표결한 결과 金鶴烈 경제기획원장관은 可91, 否109, 無効 2(在席 201), 申植秀 법무장관은 可 91, 否 109, 無効 2(在席 202)로 각각 부결되고, 吳致成 내무장관은 可107, 否 90, 無効6(在席 203)으로 해임건의안이 가결되었다. 무효표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한 공화당 소속의원 24명이 反亂票를 던졌던 것이다.<sup>10)</sup> 그러나 吳내무의 해임안 가결이 경우에 따라서는 공화당정권의 진로(특히 국회와 당운영)에까지 여러 가지 충격적인 사건을 뒤따르게 할 가능성이 있다 하여 朴正熙총재는 성곡의 이같은 결행을 자신과 당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판단하여 강경한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성곡은 抗命의 모든 책임을 자신이 면밀하고 吉在號 정책위 의장과 함께 10월 5일에 공화당을 탈퇴하고 의원직도 사퇴했다. 또한 공화당은 지휘체계를 물린케 하고 행동통일을 저해한 金昌槿·康誠元·文昌鐸씨 등 세의원과 동료 의원과 불화를 재촉하여 소속의원들이 행동통일을 할 수 없게 한 吳致成 의원에게도 각각 6개월의 停權조치를 취하는 징계를 내렸다.”<sup>11)</sup> 성곡의 정치활동은 이리하여 어이없게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 V. 結 語

이상이 1958년 5월 2일 慶北 達城에서 제4대 국회의원에 당선한

9) 前掲『逸話集』, 90면.

10) 『東亞日報』, 1971년 10월 2일판 참조. 그러나 4일자 『동아일보』에서는 공화당 의원중 가표를 던진 의원이 32명이나 된다고 보고 있다.

11) 前掲『逸話集』, 91면.

날로부터 「10·2 抗命波動」으로 1971년 10월 5일 국회의원직과 공화당당직을 사임하고 탈당할 때까지의 13년 5개월에 걸친 省谷의 주요정치활동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에 드러난 성곡의 정치활동에 대한 것이고, 그밖에 많은 것들이 아직도 베일 속에 감추어져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여기에 몇 가지 또 다른 성곡의 편모를 지적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성곡은 보수정치인에게 많은 미련과 아쉬움을 남기고 떠난 것 같다. 그것은 高興門씨가 지적한 다음 몇 마디로써 충분하다고 본다. 즉, “省谷이 있음으로 해서 공화당의 정치는 한결 빛을 빌했다. 그러나 그가 정치일선을 떠남으로 해서 공화당은 强硬일변도로 치닫게 되었고 말로를 재촉했다. 省谷이 공화당에 좀더 남아 있었더라면 정치가 더욱 활성화되었을 것이고 이후 難局이 적었으리라는 아쉬움은 지금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sup>12)</sup>는 것이다. 이 말은 비단 고흥문씨 개인만의 느낌이 아니라고 본다.

둘째, 「二等主義 인생철학」을 갖고 있었던 성곡은 소탈하고 뜨거운 포옹력을 가지고 있었다지만 끝까지 J.P. 계열에 대한 舊怨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전공화당 사무총장 申洞植씨의 말처럼, 4인체제는 “공화당 집권초기에 J.P. 계를 비롯한 군출신 정치인들에게서 받은 푸대접은 보통이 아니었다. 5·16 이후 첫 국회인 6대 국회에서 민간인 출신 국회의원들은 당직이나 국회분과위원장 등의 자리에 소외된 반면 김종필계 의원들이 거의 독차지해 버렸기 때문이었다. 특히 金振晚씨의 경우 6대 때 국회내에서 받은 푸대접은 그런 수모를 느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sup>13)</sup>고 한다. 결국 이러한 일들이 누적되어 「4인체제」가 생겼고, 그 근원은 권력 투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10·2 항명파동」을 일으켰던 것이다.

세째, 성곡은 「議會主義 信奉者」였는지 모른다. 金泳三씨는 다음

12) 前掲『逸話集』, 142~143면.

13) 申洞植「金成坤은 朴正熙를 시험했다」, 月刊『朝鮮』, 1985년 3월호, 330면.

과 같이 성곡을 평가하고 있다. 즉, “내 기억으로는 그 평가가 어 떠하든 省谷 선생은 나름대로 추구하는 바가 한결 같았다. 아마도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측면을 중요시한 것이 선생의 특징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나는 省谷 선생이 議會를 존중했고 의회정치를 신념했다는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sup>14)</sup>는 것이다. 성곡의 이러한 의회주의가 75년이후의 「드끌」식 협법을 구상하게 됐고, 「나도 의로워…」라는 말을 남겼을지도 모를 일이다.

비째, 성곡은 박대통령이 “정치력이 아니라 정치공작과 정치기술로 통치해 왔고, 박정희 통치 18년동안은 룰이라든가 합리성, 도덕, 품위, 慶度, 윤리와 같은 덕목이 아니라 정보, 마타도어, 사꾸라, 술수, 공작과 같은 물리적인 조작으로 상징되어 왔다”<sup>15)</sup>는 것을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해 보았는지 의문이다. 그러기에 성곡은 70년대 중반을 내다 본 박대통령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75년의 2월집정부제의 개헌 구상을 했고, 이용가치가 없다고 본 4인 체제의 하부조직을 박대통령이 뿜어내도록 오치성에게 특명을 내렸다는 것 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보면, 정치를 알고 정치공작을 몰랐던 성곡은 권력을 잃었지만 정치공작만 일삼고 정치를 외면했던 박정희씨는 모든 것을 잃어야만 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결국 「칼로서 잡은 권력은 칼로서 망한다」는 옛 격언이 어쩐지 거짓이 아닌 것으로 느끼게 한다.

(金舜坤·建國大 教授)

14) 前揭『逸話集』, 170면.

15) 李祥雨「朴正熙는 用人의 天才였나」, 『新東亞』, 1984년 9월호, 289면.



## 省谷과 育英·文化事業

崔 泰 鎬

### ◊ 目 次 ◊

- |               |             |
|---------------|-------------|
| I. 序 言        |             |
| II. 省谷의 基本理念  |             |
| 1. 民族主義       | 2. 人本主義     |
| III. 省谷의 育英事業 |             |
| 1. 育英理念       | 3. 龜岩學園의 設立 |
| 2. 國民大學의 引受   |             |
| IV. 省谷의 文化事業  |             |
| 1. 省谷言論文化財團   | 3. 省谷獎學會    |
| 2. 省谷學術文化財團   |             |
| V. 結 言        |             |

### I. 序 言

省谷은 그의 一生을 통하여 多方面에 걸쳐서 많은 業績을 남겨 놓았다. 政治·經濟·言論·育英·文化·體育分野에 이르기까지 남다른 혼적을 우리 社會에 남겼다. 그러나 省谷 本然의 모습은 어디까지나 革新的이며 先覺的인 企業人이었으므로 經營史學會는 우리나라 企業家史研究의 첫 試圖로서 省谷에 관한 研究를 第1次 研究課題로 삼고, 筆者에게 「省谷과 育英 및 文化事業」이라는 研究를 依賴해 왔다.

筆者의 感覺으로는 本 研究課題가 企業人의 社會的 責任이라는側面의 實證研究를 要求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는 省谷의 育英 및 文化事業 등이 결국 企業家史研究라는 次元에서 볼 때 企業人의 社會的 責任意識의 發露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本 研究課題에 接近하기 위해서는 우선 省谷의 基本理念부터 追究되어야 할 것이고, 그 理念에서 비롯된 省谷의 育英事業과 文化事業 등은 어떤 形態와 内容으로 展開되었는가를 實證的인 方面에서 分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막상 이런 식으로 論文을 構想하다 보니 省谷에 관한 議見이 희박한 筆者로서는 결코 쉬운 作業이 아니었다. 특히 省谷의 基本理念을 追究함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았다. 한 두 가지의 既存資料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省谷의 基本理念을 鮮明하게 理解하기에는 充分하지 못했고, 또 몇 가지의 短片의인 人物評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省谷의 基本理念을 追究하는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거기에다 研究期間마저도 30~40日 밖에 주어지지 않아 對人探訪을 통한 口傳資料조차 얻을 여유가 없었다.

따라서 本 研究의 結果는 보잘것 없는 것이 되고 말았으며 잘못된 分析이나 敘述도 적지 않으리라 料된다. 다만 本研究가 多少 나마 그 뜻이 있다고 한다면 後日의 省谷研究를 위한 하나의 二次資料를 提示했다는 點이라 할 것이며, 筆者自身이 얻은 바가 있다면 한 人物에 대한 研究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새삼 느끼게 되었다는 點이라 하겠다.

## II. 省谷의 基本理念

特定人の 精神이나 理念을 究明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며, 모험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한 人間의 精神이나 理念을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一生을 통해서 남기고 간 遺業이나 그 사람의 人品 또는 生存時의 日常的인 生活態度 등에 이르기까지 이를 綜合的으로 分析하여 客觀化해야 하는데, 이는 보는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省谷의 경우도 勿論例外는 아니다. 몇 가지의 特徵이며 단편적인 資料만으로 省谷의 基本理念을 云謂한다는 自體가 無理인 줄 알지만 여기서 그의 基本理念을 抽出하여 集約해 본다면 두 가지로 要約해 볼 수 있겠다. 즉, 그 하나는 民族主義理念이오, 다른 하나는 人本主義理念이 그것이다.

## 1. 民族主義

民族主義라는 것도 보는 사람에 따라 그 概念과 内容이 다를 수 있고, 또 時代에 따라서도 그 形態나 内容面에서 여러가지의 特色이 있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一意的으로 定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기서 省谷의 基本理念의 하나로 民族主義라는 用語를 쓴 것은 지극히 단순한 意味, 즉 民族을 사랑하는 愛族精神이라는 뜻에서 使用했음을 밝혀 둔다. 그리고 本節에서는 省谷의 民族主義理念은 어느 때부터 生成・成熟되어 갔으며, 그의 民族主義는 어떠한 形態로 發現되었는가를 概觀해 보기로 하겠다.

省谷의 民族主義意識은 그의 中學時節부터 爽트기 시작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省谷이 大邱高普 2學年 때, 즉 1929年 11月 3日 光州學生事件이 勃發되자 그 영향은 短시간에 全國的으로 波及되어 갔고, 이 때 省谷의 어린 가슴속에서도 나라 없는 民族은 父母 없는 孤兒와 같다는 民族意識이 爽트기 시작했다. 그리고 2年後인 1931年(大邱高普 4學年)에는 이른바 大邱高普抗日 스트라이크가 일어났는데, 이 때에 이미 省谷은 네 사람의 主動學生 중 한 사람으로 끼어 있었고, 그 때문에 省谷은 及其也 退學處分을 받아야만 했다.<sup>11)</sup>

1) 『별일 없제－省谷 金成坤先生 逸話集』(以下『逸話集』이라 略함, 22~35면 〈省谷 金成坤先生 略傳〉参照.)

그 후 省谷은 普成高普에 編入하여 學業을 계속하게 되었는데, 同校는 우리 民族이 경영하는 私學이어서 비교적 自由로운 雾圍氣下에 그의 民族意識은 더욱 成長되어 갔다.<sup>2)</sup>

이처럼 中學時節을 통하여 省谷의 民族意識은 싹터서 자라기 시작했고, 그후 普專時節을 통해서는 이것이 점차 成熟되어 갔다. 省谷이 普專進學을 擇한 것은 少年時節부터 싹튼 그의 民族意識 때문이라 할 수 있다. 普專時節에는 특히 仁村의 영향을 强하게 받았다. 즉, 民族이 무엇이며, 民族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도 仁村의 無言 實踐精神에서 배울 수가 있었다. 그래서 省谷은 자신의 人格形成過程에서 決定的 영향을 준 분이 仁村이었으며 仁村의 育英事業, 言論事業, 民族企業 등을 흡모하게 되었음을 追懷하고 있다.<sup>3)</sup> 따라서 普專時節은 省谷의 民族主義理念이 確固한 信念으로 成熟되어 각時節이라 볼 수 있겠다.

省谷의 民族主義精神은 우선 그의 革新的인 企業活動面에서 發露되었다. 그는 企業을 創業함에 있어서 단순한 蕪財보다 國家나 民族에 有益한 事業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였다. 이는 그의 革新的인 企業活動의 발자취가 反證해 주고 있다. 즉, 三共油脂의 經營으로부터 출발한 省谷은 光復과 더불어 國民經濟의 基本產業이 纖維部門임을 깨닫고 종래의 三共油脂(비누工業)를 處分하여 金星紡織을 創設했으며, 또 60年代의 經濟開發過程에서는 基幹產業部門이 國民經濟의 發展에 必要不可缺함을 認識하고 繁盛중이던 金星紡織을 果敢하게 處分하여 시멘트, 電力產業 등에 轉換함으로써 國民經濟의 發展에 앞장섰다.<sup>4)</sup> 이런 點에서 그는 이른바 J.A. Schumpeter의 革新的 企業家像의一面을 보여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곧 그의 民

2) 國民大學編『省谷育英理念』, 38~46면, 201~3면 參照.

3) 1969年『新東亞』3月號, 〈金成坤씨〉題下의 인터뷰欄 및 『省谷育英理念』 49~56면 參照.

4) 省谷의 企業活動의 발자취에 대하여는 前揭『逸話集』, 48~64면, 『省谷育英理念』, 206~212면, 『國民大學 30年史』, 179~80면 參照.

族主義理念이 企業活動面에서 發露된 것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省谷의 民族主義理念은 그의 企業經營精神面에서도 發露되었다. 「돈은 베풀기 위해서 빤다」는 것이 그의 철저한 企業經營理念의 하나였다. 즉, 그는 企業家란 社會財產의 잠정적인管理者에 不過하다는 것을 企業經營理念으로 삼고 있었으며, 自己一代에 번 돈은 그一代에서 社會와 民族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持論이요 信念이었다.<sup>5)</sup> 따라서 그는 現代企業人의 社會的 責任을 自覺한 先覺的 企業人이기도 했으며, 그 때문에 그는 企業利潤의 社會的 還元을 일찍부터 實踐에 옮겼고, 또 누구보다도 먼저 雙龍 그룹의 企業公開를 단행하기도 하였다.<sup>6)</sup>

또한 省谷은 10餘年의 政治活動에서 물리나 企業人 本然의 姿勢로 돌아온 後에도 自身의 企業經營보다는 오히려 國民經濟의 發展을 위해 活動하였다. 그는 經濟界의 指導者로서 石油波動以後에는 物資節約을 위한 汎國民運動을 展開하는 한편, 自發的인 民間經濟外交活動에 앞장서기도 했다.<sup>7)</sup>

## 2. 人本主義

人本主義(Humanism)의 概念과 内容에 대해서는 學者에 따라 見解가 다르고, 또 時代에 따라서도 달라져 왔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省谷의 人本主義란 지극히 소박한 意味의 初步的 人本主義, 즉 人間을 사랑하고 尊重하는 精神을 뜻한다. 이러한 意味의 人本主義는 東西洋을 막론하고 神보다 人間을 더욱 尊重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하며, 이를 다시 源源的으로 보면 物質的 資源보다 人的 資源이 최소한데서 胚胎되었다고 한다. 예컨대 사람이 있으면 土地가 있고, 土地가 있으면 財產이 있다는 생각, 즉 人間의 創造的 能力에 대한 위대함을 깨닫게 됨으로써 人間을 사랑하고 尊重하는 마음

5) 전병성 실록소설 『김성곤』 및 『省谷育英理念』, 212~15면 參照.

6) 前揭 『逸話集』(省谷先生一代記年表), 472면 參照.

7) 「同書」 438면 및 上揭 『年表』, 471~4면 參照.

이 생기게 되어 人本主義思想은 生成되었다고 한다.<sup>8)</sup> 따라서 佛教의 慈悲精神이나 孔子의 仁이라는 것도 결국 他人을 사랑하고 他人을 利롭게 하며 他人에게 奉仕한다는 人本精神이라 할 수 있고, 古代 耶穌이나 羅마의 人本思想도 人間의 能力과 그에 대한 사랑 및 尊重精神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次元에서 볼 때 省谷의 人本主義는 그의 日常的인 生活信條 및 生活態度 등에서 찾아 볼 수 있겠다. 그는 우선 사람을 대할 때마다 누구에게나 差別을 두지 않고 진지하게 대했을 뿐 아니라, 한번 인연을 맺으면 결코 벼리지 않았으며, 남의 어려움을 보면 결코 무심히 지나치는 일도 없었다.<sup>9)</sup>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흔히 그를 가리켜 소탈하고 包容力 있는 巨木이니, 혹은 人情 많은 社會事業家라고도 일컫는다.

그러나 省谷의 人本主義精神은 그의 人間投資觀에서 뛰어이 엿볼 수 있다. 省谷은 國家나 民族 또는 企業 등 모든 社會集團의 發展은 곧 그 構成員인 人間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 그의 투철한信念이었다. 다시 말하면 人間社會의 가장 確實하고도 값진 資產은 人間이라는 것이 그의 確固한 理念이오 持論이었다.<sup>10)</sup> 그래서 그는 平素에 人間投資를 強調하였고, 또 이를 實踐에 옮겼다. 그의 人間投資란 國家나 社會發展에 有用한 人材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投資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天賦의 才能이나 素質을 지니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가난해서 이를 기르지 못한다면 그 個人的不幸일 뿐만 아니라 社會的 및 國家的인 大損失이므로 이에 대한 投資가 이루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人間投資觀이었다.<sup>11)</sup> 따라서 省谷의 人間投資觀은 이를 本質的인 面에서 볼 때 人間의 能力を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人本主義精神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그의 精

8) 崔仁『新人本主義』, 178~83면 參照.

9) 1970年 11月 18日, 『週刊한국』〈雅號순례〉記事 參照.

10) 前掲 실록소설『김성곤』49면 以下 및 前掲『逸話集』46면 參照.

11) 1968年 5月 20日 『國民大學報』「國民大學과 나」 參照.

神은 곧 T.W. Schultz의 人間資本觀과도 根源的으로 軌를 같이 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또한 省谷의 人本主義精神은 남에게 배풀어야 한다는 그의 生活信條에서도 엿볼 수 있다. 物慾이 없으면 그것이 곧 人間愛或 人間尊重의 表像이라고도 볼 수 있다. 省谷은 私慾이 지나치면 不義를 저지르기 쉬울 뿐만 아니라 남에게 害를 끼게 되는 것이므로 私慾을 社會惡의 하나로 보았고 利己主義의인 人間을 가장 싫어했다.<sup>12)</sup> 그래서 그는 既述한 바와 같이 돈은 배풀기 위해 번다는 것이 그의 뚜렷한 生活信條로 되어 있었으며, 주위의 측근에 대해서는 오히려 철저하게 인색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人品을 흔히 近薄遠厚라는 말로 表現하기도 한다.<sup>13)</sup>

以上에서 概觀한 바와 같이 省谷의 基本理念은 民族主義와 人本主義로 要約할 수 있으며 後述하는 그의 育英事業과 文化事業 등은 이러한 基本理念의 發露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 III. 省谷의 育英事業

#### 1. 育英理念

省谷의 育英事業은 1959年 國民大學의 引受를 契機로 하여 시작되었다. 무릇 育英事業에는 투철한 育英理念의 土臺위에 展開되는 것이一般的이다. 그렇다면 省谷의 育英事業을 보기에 앞서 그의 育英理念부터 分析해 볼 必要가 있다. 그리고 省谷의 育英理念을 보기 위해서 우선 國民大學의 創設者인 海公의 建學理念부터 보아둘 必要가 있다. 海公의 建學理念은 그의 不忘救國精神에서 그 源流을 찾을 수 있다. 海公의 建學理念을 한마디로 表現한다면 建學救國主義로 集約해 볼 수 있는데, 이는 新生國의 基礎가 될 人材,

12) 『省谷育英理念』 248면 參照.

13) 前揭『逸話集』 94~5면 參照.

즉 救國의 棟樑을 길러 낸다는 그의 國士養成觀이 그 主軸을 이루고 있으며, 그 具體的인 方法論의 하나로서 高等教育의 普遍化(高等教育의 機會均等化)를 표방하게 되었다.<sup>14)</sup> 여기서 高等教育의 普遍화란 特定階層만의 大學이 아니라 經濟的인 理由 등으로 教育惠澤의 機會를 喪失하기 쉬운 許多求學의 青年에게 最高學術을 연마할 수 있는 機會를 부여한다는 것으로서 그 實踐을 위해 國民大學은 夜間大學으로 出發한다는 것을 意味한다.<sup>15)</sup>

한편 省谷의 育英理念은 그의 人間投資觀에서 그 源源을 찾을 수 있다. 既述한 바와 같이 省谷의 人間投資란 國家有爲의 人材에 대한 投資, 즉 國家나 社會의 永生과 發展을 위해서는 人間投資가前提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省谷의 人間投資觀에는 다음과 같은 意味가 内包되어 있다. 즉, 個人的 經濟的事情으로 그의 天賦的인 才能과 素質이 育成되지 못한다면 이는 곧 그 個人的 不幸일 뿐만 아니라 社會의 및 國家의 次元의 大損失이 되는 것이므로 國家有爲의 人材에 대한 投資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좀 더 具體的으로 본다면 量的인 것보다 質的인 面에서 비록 가난하지만 우수한 精銳分子를 뽑아 그들에 대한 集中的인 無償投資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省谷의 人間投資觀에는 内包되어 있다는 것이다.<sup>16)</sup>

그래서 省谷은 孟子의 君子三樂論을 引用하면서 君子의 三樂에서도 으뜸가는 것은 天下의 英才를 모아 教育하는 것인데, 自己自身은 君子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지만 英才教育의 삼대경을 理解할 수는 있어 國民大學과 인연을 맺게 된 所以라고 출회하였다.<sup>17)</sup> 이와 같이 볼 때 省谷의 育英理念은 少數精銳의 英才에 대한 無償教育觀

14) 『國民大學 30年史』, 71~2면 所收 〈國民大學建立趣旨文〉 參照.

15) 「同上」.

16) 『省谷育英理念』 231~3면, 「國民大學 30年史」 194면, 실록서설 『김성곤』 372면 參照.

17) 1968年 5月 20日 『國民大學報』 〈國民大學과 나〉 參照.

즉英才無償教育主義가 그의 育英理念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省谷의 育英理念은 本質的인 面에서 海公의 建學理念과 一脈相通하면서도 한층 더 昇華된 内容의 것이라 볼 수 있다.

## 2. 國民大學의 引受

省谷이 國民大學을 引受하게 된 것은 우선 그의 基本理念에서 그動機를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그의 基本理念의 하나인 民族主義理念은 그가 國民大學을 引受함에 있어서 直接的인 要因으로 作用하였다. 이는 그가 仁村에의 感化로 仁村의 育英事業을 흡모해 왔다는 事實과 民族의 指導者로서 그가 尊敬해 왔던 海公이 創設한 大學을 어려운 舉件下에서도 引受를 決心하게 되었다는 事實 등이 反證해 준다.<sup>18)</sup>

8.15解放과 더불어 海公은 建國을 앞두고 복잡한 政治日程 속에서도 國家의 棟樑之材를 양성하기 위해 1946年 12月 軍政當局으로부터 大學設立의 認可를 얻어 國民大學을 創設하였다. 그러나 1955年 湖南遊說途中 海公이 逝去하게 되자 그 후의 國民大學은 財團의 不實로 漂流하기 시작하였고 及其也是 폐교의 危機에까지 몰리게 되었다.<sup>19)</sup> 이에 省谷은 아직도 모든 舉件이 여의치 못하여 그의 측근들이 만류함에도 不拘하고 「海公이 남긴 것은 그것 뿐인데」라며 1959年 10月 國民大學을 引受하였다.

이리하여 그가 平素에 念願하던 育英事業은 實現을 보게 되었고, 폐교의 위기 속에서 빈사상태에 빠졌던 國民大學은 다시 소생하게 되어 中興의 契機를 맞이하게 되었다. 國民大學을 引受한 省谷은 우선 廢棄狀態로 放置되어 있던 昌成洞 校舍의 新築工事부터 拍車를 加하는 한편, 이를 더욱 擴張하여 增築토록 했으며, 해마다 1억圓씩 運營資金을 아무런 條件없이 내놓았다.<sup>20)</sup> 그리고 1960年代 後

18) 『省谷論叢』第6輯, 1975年 所收 金圭煥씨의 〈人間省谷先生〉参照.

19) 『省谷育英理念』124~133면 및 『國民大學 30年史』121~143면 參照.

20) 『省谷育英理念』143면 參照.

半에 들어와서는 貞陵에 校地를 마련하여 새 校舍를 建設하고 1971年 9月學期에는 國民大學을 現在의 貞陵캠퍼스로 移轉하였다.

한편, 省谷은 大學運營의 基本方針을 學校自律에 맡김으로써 財團側의 干與는 이를 一切 排除한다는 것을 原則으로 삼았으며, 省谷의 이와 같은 基本方針은 그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계승되어 오고 있다. 또한 大學運營의 目標는前述한 省谷의 育英理念에 따라 名實相符한 少數精銳의 高等教育機關으로 育成 發展시킨다는 데 두고 있다. 그래서 現在의 國民大學校는 7個單科大學과 4個大學院으로 編成되어 總學生數 8,000餘名의 綜合大學으로서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少數精銳의 英才에 대한 無償教育을 점진적으로 實現하기 위해 學費全額을 補助하는 省谷獎學金을 支給하고 있다.

### 3. 龜岩學園의 設立

省谷이 國民大學에 이어 두번째로 着手한 育英事業은 1966年 3月 그의 鄉里인 玄風에 設立한 龜岩學園이며, 이것이 現在의 玄風中高等學校이다. 省谷의 鄉里인 玄風에는 元來 두개의 私立學園이 있었다. 그 하나는 1952年 5月에 設立認可를 받은 玄風學園(3學級編制의 中學校)이고, 다른 하나는 1953年 6月에 設立認可를 받은 見思學園(3學級編制의 玄風高等學校)이었다. 그런데 이를 두 學園은 모두 財團의 不實로 변변한 校地나 校舍가 없어 이름뿐인 學園이었다.

두 學園의 딱한 事情을 알게 된 省谷은 마침 玄風 有志들의 要請도 있고 해서 1963年에는 우선 玄風學園을 引受하기로 決心하고 그의 親兄 龜岩 金漢坤으로 하여금 校地를 마련해서 現代式 3층 校舍(13個 教室)부터 新築케 하여 1965年에는 이의 竣工을 보게 되었고 이듬해인 1966年 3月에는 見思學園마저 引受하여 中學校와 高等學校를 統合한 龜岩學園을 設立하였다.<sup>21)</sup>

龜岩學園을 設立한 省谷은 學校의 運營과 建設 등 實務一切를 親

21) 『國民大學 30年史』 181~3면 및 『省谷育英理念』 162~7면 參照.

兄인 龜岩에게 맡기고 地上 3층 地下 1층의 高等學校 校舍의 新築을 서두르는 한편, 既存의 中學校 校舍와 附屬建物 등을 增築케 하였다. 이리하여 오늘의 玄風中高等學校는 아담한 現代式校舍와 各種의 教育施設을 고루 完備한 名門私學의 하나로 그 面貌를 一新하게 되었다.

## IV. 省谷의 文化事業

省谷의 文化事業도 그의 育英事業과 마찬가지로 그 動機는 그의 基本理念에서 源源을 찾아 볼 수 있겠다. 企業利潤의 社會還元과 人間投資라는 그의 生活信條에서 비롯된 것이 그의 文化事業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文化事業이라 하면 言論·育英·藝術 등 그 對象이 매우 廣範圍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言論 및 育英과 關聯된 몇 가지의 事業만을 對象으로 하여 考察해 보기로 하겠다.

### 1. 省谷言論文化財團

省谷은 1985年 9月 13日 言論人の 資質向上을 主目的으로 하는 財團法人 省谷言論文化財團을 創設하였다. 同 財團은 省谷이 美國의 니맨財團과 英國의 톰프슨財團 등을 본 받아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創設된 公益財團法人인데, 여기서는 그 設立經緯와 目的 및 그 事業實績만을 要約해 보기로 하겠다.

1965年 8月에는 이른바 言論波動이 일어나 政府와 言論界 사이에 正面對立이라는 極限狀況이 벌어졌다. 이 때 省谷은 政府와 言論界의 中間에서 幕後調停을 통하여 破局直前에 이를 원만히 收拾하는 한편 일각에서 일고 있던 言論人の 資質問題에 자극되어 言論人の 資質向上을 위한 公益財團의 設立을 決心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同年 9月 13일에 이르러 創設된 것이 財團法人 省谷言論文化財團이었다.<sup>22)</sup>

22) 言論波動 및 言論文化財團의 設立經緯에 대하여는 『逸話集』 74~5면, 148면 參照.

同財團의 設立目的은 新聞 通信 및 放送部門에 從事하는 言論人 의 資質向上을 圖謀하고 言論 및 文化事業의 건전한 發展을 期하는 데 있다고 要約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한 具體的 事業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sup>23)</sup>

- ① 中堅 以上의 言論人에 대한 海外留學 및 海外視察費用의 補助
- ② 言論人の 再教育을 위한 諸般事業의 實施

#### 성곡언론문화재단 각종 활동 실적

단위 : 원

연도	해외유학장학금		해외시찰보조금			기타행사비 보조금
	인원	금액	행선지	인원	금액	
'65			동남아	6	80,000	1,200,000
'66	3	3,500,000	동남아, 일본	43	3,300,000	1,300,000
'67	5	5,840,000	"	45	3,500,000	1,400,000
'68	4	5,849,250	동남아	41	3,185,924	1,507,000
'69	5	9,685,694	"	7	550,000	1,950,000
'70	5	4,410,165	"	38	3,920,242	1,000,000
'71	5	11,808,410				820,000
'72	3	13,429,320				490,000
'73	4	15,058,400				
'74	5	17,235,338				
'75	4	19,051,000				2,756,490
'76	5	29,461,975				1,521,406
'77	5	29,591,803				1,700,000
'78	4	21,553,845				200,000
'79	4	24,674,249				700,000
'80	3	370,00,000				1,202,500
'81	4	37,000,000				
'82	6	64,000,000				1,000,000
'83	4	68,000,000				1,500,000
'84	5	70,000,000				2,000,000
'85	4	30,000,000				
계	87	567,159,449		180	14,536,166	22,247,396

資料：雙龍弘報室

23) 財團法人 省谷言論文化財團定款 第3條 參照.

### ③ 言論 및 文化暢達을 위한 諸般育英事業의 實施

그리고 同 財團의 運營方針은 言論界의 重鎮들에게 委任하는 方式을 取하였다. 즉, 設立者인 自身은 同 財團의 運營에 一切 干與하지 않고 言論界의 重鎮으로 構成된 理事會와 運營委員會에 一任하는 것이 同 財團의 基本運營方針으로 되어 있었다.<sup>24)</sup> 그리고 同 財團의 運營에 있어서는 創立者の 측근(가령, 東洋通信社의 職員 등)은 그 受惠者로부터 除外한다는 것이 또 하나의 暗默的인 運營方針으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企業利潤의 社會還元과 人間投資라는 省谷의 精神은 그 實踐面에서도 그의 近薄遠厚라는 人品 때문에 더욱 찬양을 받기도 하였다.

끝으로 同 財團의 主要事業을 보면 言論人の 海外留學 및 海外視察補助事業을 비롯하여 서울大 新聞大學院生에 대한 奨學事業, 現職記者의 短期訓練事業, 有功言論人의 遺子女에 대한 奖學事業, 外國教授의 招聘에 의한 세미나事業, 韓印記者의 交流事業 등을 들 수 있는데, 主要事業實績의 內譯은 위와 같다.

## 2. 省谷學術文化財團

省谷은 1965年의 言論文化財團에 이어 1968年 12月28일에는 學術文化財團을 設立하고, 이를 이듬해인 1969年 1月부터 發足시켰다. 그가 同 財團을 設立함에 있어서는 비교적 오랜 準備期間을 所要했던 것 같다. 그것은 당시의 그가 共和黨의 財政委員長이라는 職責을 맡고 있었던 데 緣由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다시 말하면 그의 職責으로 보아 財團設立에 대한 오해나 雜音 또는 世間의 역습등이 예상되었고 그 때문에 省谷은 財團設立問題를 深思熟考하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大統領의 決裁까지 얻어 둔 그의 心情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이다.<sup>25)</sup>

24) 『省谷論叢』第6輯 1975年 所收 金圭煥씨의 〈人間省谷先生〉 및 言論文化財團 定款 第3章 任員(10~15條) 및 第4章 理事會(16~19條) 등 參照.

25) 『省谷論叢』第6輯 1975年 所收 金圭煥씨의 〈人間省谷先生〉 參照.

省谷學術文化財團은 그가 學者들의 研究活動을 支援하기 위해 創設한 公益財團法人인데, 이것이 우리 나라에서는 個人에 의하여 設立된 最初의 學術財團이라는 데 그 意義는 크다 하겠다. 여기서 同財團의 設立目的과 運營方針 및 事業實績 등을 概觀하면 다음과 같다.

同財團의 設立目的은 한 마디로 말해서 學問에 從事하고 있는 國內人士의 研究活動을 奬勵支援함으로써 民族文化의 向上과 國家發展을 期하려는 데 있다고 要約할 수 있는데, 이를 實現하기 위한 具體的인 事業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sup>26)</sup>

- ① 學術研究를 위한 研究費 및 補助金의 支給
- ② 學術研究者에 대한 海外留學과 海外視察費 및 補助金의 支給
- ③ 學術論文 및 調査研究를 위한 圖書의 出版
- ④ 學術團體의 諸般活動을 위한 經費의 補助
- ⑤ 其他 이에 附帶되는 諸事業

그리고 同財團의 運營도 言論文化財團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斯界의 重鎮들에게 一任한다는 基本方針을 取하였다. 즉, 學界의 重鎮으로 構成된 理事會와 運營委員會에게 同財團의 運營을 委任하고 自身이나 측근의 干與는 一切 排除한다는 것이 基本方針이었다.<sup>27)</sup> 또한 同財團의 運營에 있어서도 設立者的 연고자(가령 國民大 教授 등)에 대한 受惠는 可及의 除外하도록 당부했는데, 여기서도 그의 私心 없는 近薄遠厚의 人品을 엿볼 수 있다.

끝으로 同財團의 事業內譯을 보면 人文社會科學部門의 大學教授에 대한 研究費支給과 海外旅行補助 및 學會活動의 支援 등이主流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1986年부터는 省谷學術文化賞의 施賞事業을 創設하여 해마다 2명씩(人文社會學部門 1명, 自然科學部門 1명)의 受賞者를 選定·施賞키로 하였다. 第1回 受賞者로는 人文社會科

26) 財團法人 省谷學術文化財團定款 第4輯(事業) 參照.

27) 『省谷論叢』第6輯 1975年所收 金圭煥씨의 〈人間省谷先生〉 參照.

學部門에 허옹, 自然科學部門에 조순탁이 각각 選定되어 86年 7月 14日에 그 施賞式을 가졌다

### 성곡학술문화재단 활동실적

단위 : 천원

연도	연 구 비		해외여행보조		학회지원비	
	건 수	금 액	명 수	금 액	지급회수	금 액
1969	46	16,540	20	1,810	16	2,500
70	78	24,650	21	1,900	16	2,500
71	93	27,300	25	2,010	17	2,650
72	71	24,330	14	1,380	11	1,640
73	27	9,000			6	900
74	34	15,700			7	1,400
75	32	14,200			7	1,400
76	30	13,200			6	1,800
77	31	18,100			9	3,600
78	31	18,100	4	1,100	9	3,600
79	29	22,700	7	1,500	7	3,500
1980	20	24,000	9	3,120	6	3,000
81	18	23,400	8	1,700	7	3,500
82	18	23,400	9	3,090	7	3,500
83	18	27,000	9	3,200	7	4,900
84	18	27,000	10	4,000	7	5,000
85	20	30,000	10	5,000	8	5,600
86	21	42,000		미 정		미 정
합계	635	400,620	146	29,810	153	50,990

資料 : 雙龍弘報室

### 3. 省谷獎學會

省谷獎學會는 1964년에 省谷이 主로 鄉里의 어려운 후배들에게 學費全額 또는 그一部를 補助하기 위해 設立한 것인데, 同 奬學會는 國校生으로부터 大學生에 이르기까지를 그 受惠對象으로 하여 1972年까지 存續되었다.

同 奬學會의 運營은 그 해의 장학금을 教育委員會에 기탁하여 學

校長이 선발한 學生에게 支給토록 하는 方法을 채택하고 있었다. 따라서 教育委員會則에서는豫算外收入으로 別途計定을 만들어 教育委員會의 分任支出官이 담당하여 支給하였다. 그리고 教育委員會의 소속이 아닌 大學生들에게는 奨學會則에서 직접 支給해 주거나 또는 送金해 주었다. 이 밖에도 省谷은 1971年 4月 28日 韓國獎學財團理事로 就任하면서 文教部에 1,000萬원의 奖學基金을 赴 사하기도 하였다.<sup>28)</sup>

## V. 結　　言

既述한 바와 같이 省谷의 基本理念은 民族主義와 人本主義로 要約해 볼 수 있다. 그의 民族主義理念이란 한 마디로 말해서 民族을 사랑하는 愛族精神이 뚜렷했다는 뜻이다. 省谷의 愛族精神은 그의 少年時節부터 짹트기 시작하여 普成專門時節을 통해 成熟되었다고 흔히들 말한다.

그리고 省谷의 民族主義理念은 그의 企業活動이나 企業經營精神에서 發露되고 있었다. 그는 우선 企業을 創設함에 있어서는 단순한 蕢財보다 國家나 民族에 有益한 事業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했으며, 商工人은 國家的 次元에서 企業經營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持論이기도 했다.<sup>39)</sup> 또한 그는 企業人の 社會的 責任을 누구보다도 먼저 自覺하고 企業利潤의 社會還元 및 企業公開 등을 앞장서서 實踐에 옮겼으며, 그의 末年에 와서는 自身의 企業을 들보기보다는 오히려 國民經濟의 發展을 위해 汎國民 節約運動을 展開하는 한편 自發의 民間經濟外交活動에 力點을 두기도 하였다.

省谷의 基本理念의 다른 하나는 人本主義理念이라 할 수 있는데, 그의 人本主義란 人間을 사랑하고 尊重하는 精神을 말한다. 그리고

28) 前掲『逸話集』〈省谷金成坤先生一代記年表〉470면 參照.

29) 1973年 9月 14日 『新亞日報』記者對談 參照.

省谷의 人本主義理念은 그의 人間投資觀에서 엿볼 수 있는데, 모든 社會集團의 發展은 그 構成員인 人間의 能力開發을 위해서는 그에 대한 投資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持論이었다. 다시 말하면 天賦의 才能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해서 이를 開發하지 못한다면 이는 곧 社會的인 大損失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英才에 대한 教育投資를 強調했고, 또 이를 實踐하기도 하였다. 이런 點에서 그의 人間投資觀은 T.W. Schultz의 人間資本觀과 그根源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省谷의 人本主義는 돈은 베풀기 위해 번다는 그의 生活信條에서도 엿볼 수 있다. 즉, 物慾이 없으면 그것이 곧 人間愛와 人間尊重의 表像이라는 觀點에서 그는 利己主義의인 人間을 가장 痴어 했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돋는데 인색하지 않았다.

省谷의 育英理念은 한 마디로 말해서 英才無償教育主義로 表現할 수 있는데, 이러한 理念은 그의 育英事業과 文化事業에서도 發露되었다. 돈은 없지만 머리 좋은 사람을 뽑아서 무상으로 教育시키고 돋는다는 것이 그의 持論이었고 또 이를 實踐에 옮겨 왔다. 이와 같이 볼 때 省谷의 育英理念은 결국 그의 基本理念인 民族主義와 人間主義理念에서 그 源源을 찾아 볼 수 있고, 또 그의 育英事業과 文化事業도 그의 基本理念의 發露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省谷의 育英事業은 1959年 10月 國民大學의 引受를 嘴矢로 하여 實踐에 옮겨졌고, 이에 이어서 1963年에는 玄風學園의 引受를 決行했으며, 1966年에는 見思學園까지 引受하여 現在의 玄風中高等學校의 運營財團인 龜岩學園을 設立하였다. 省谷의 育英事業에서 찾아 볼 수 있는 特色의 하나는 學園의 運營方針을 學校自律에 맡김으로써 財團側의 干與를 철저히 排除하고 있다는 點이라 하겠다. 그리고 學園의 運營目標는 그의 育英理念에 따라 少數精銳의 英才에 대한 無償教育을 점진적으로 實現하는 데 두고 있다.

한편 省谷의 文化事業은 1965年 9月 言論人の 資質向上을 위해

設立한 財團法人 省谷言論文化財團의 運營과 1968年 12月末 學者들의 研究活動을 支援하기 위해 設立한 財團法人 省谷學術文化財團의 運營 등을 그 代表的인 것으로 들 수 있다. 이들 文化財團은 그것이 모두 우리 나라에서는 省谷 個人에 의해서 最初로 設立된 公益 財團이라는 데 우선 하나의 큰 意義가 있으며, 企業利潤의 社會還元이라는 現代企業經營精神의 본보기라는 데 또 하나의 意義가 있다. 그리고 두 財團의 運營에 있어서도 學園運營의 그것과 마찬가지 斯界의 重鎮으로 構成된 理事會와 運營委員會 등에 一任하는 것을 基本方針으로 삼고 있다.

이 밖에도 省谷은 1964年 鄉里의 어려운 후배들에게 學費支給을 目的으로 省谷獎學會를 設立하여 國校生으로부터 大學生에 이르기 까지 學費의 全額 또는 그 一部를 補助하기도 했으며, 人文社會科學系의 學會活動을 支援하기도 하였다.<sup>30)</sup>

(崔泰鎬 · 國民大 教授)

---

30) 『省谷論叢』第6輯 1975年 所收 金圭煥씨의 〈人間省谷先生〉 및 前揭 『逸話集』187~8면 所收 金点坤씨의 〈韓國私學의 倫理規範 제시〉등 參照.

## 省谷의 言論機關經營

權丙阜 · 金柄夏

### ◊ 目 次 ◊

- I. 序 言
- II. 省谷과 新聞·放送會社
  - 1. 省谷과 新聞
  - 2. 嶺南日報·大韓通信·東洋通信
  - 3. 聯合新聞·大邱文化放送
- III. 國際新聞 編輯人協會와 省谷
- IV. 言論波動과 省谷
- V. 省谷言論文化財團의 成立
- VI. 言論機關의 經營
- VII. 結 言

### I. 序 言

省谷 金成坤(1913년~1975년)은 慶北 達城 출신으로서 普通學校 4학년 때 大邱로 移住, 初中等教育을 大邱에서 받고 이 곳에서 사업의 기반을 굳힌 후 雙龍 그룹을 창업한 自手成家的<sup>1)</sup> 指導者型 企業家요 政治家였으며, 言論의 重鎮이었다. 雅號가 의미하듯이<sup>2)</sup> 그

- 1) 初期 農業資本의 成立過程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自手成家型 企業家에 관해서는 權丙阜『韓國經濟史』162면과 362면 참조.
- 2) 省谷의 省字는 반성한다는 뜻 이외에 審·明·審의 뜻이 있다. 즉, 자세하다·밝다·아끼다의 뜻이 있어서 그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다.(金成坤「省谷」, 省谷傳記刊行委員會『별일 없제一省谷金成均先生逸話集』397면 참조.)

는 도량이 크면서도 소심하였고, 처신에 신중을 기하는 高度成長期의 엘리트였다고 말할 수 있다.

省谷이 활약한 분야는 企業·政治·育英·體育·言論 등 광범위하나 이 논문에서는 그 중에서 가장 실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言論機關의 經營에 초점을 맞추어 논하려고 한다. 그는 言論人임을 자부하였으나 전문적 言論人은 아니었으며 言論機關의 經營者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言論機關經營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을 당면 과제로 한다.

## II. 省谷과 新聞·放送會社

### 1. 省谷과 新聞

言論機關에는 新聞·放送·雜誌·映畫 등 여러 분야가 있겠으나 省谷이 직접 經營한 것은 新聞·通信社와 放送局이었다.

省谷을 言論人이라고 부르기도 하나 그것은 言論界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이해된다. 言論이란 것은 말이나 글로써 자기의 사상을 발표하는 행위요, 순수한 의미의 言論機關에 종사하여 言論으로써 업을 삼는 journalist를 의미한다고 할 때 省谷은 言論機關의 經營者로서 言論機關에 종사한 사람이요, 言論暢達의 先驅者였다고 말할 수 있다.

言論은 인류문화의 발달과 더불어 발달하였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宣祖 11년(1578) 2월(戊寅)에 朝廷의 「朝報」를 본딴 민간인 신문 「朝報」가 印出된 사실이 있다. 그러나 近代社會에 있어서의 言論의 중요성은 封建社會의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다. 需要面에 있어서나 媒體의 樣式에 있어서의 차이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言論媒體를 통한 지식과 정보의 대량전달은 개인과 企業뿐만 아니라 일반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省谷은 大量媒體의 중요성과 企業性을 놀라울 정도로 일찍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첫째로 자형인 韓翼東의 영향이 작용하였다고 생각된다. 韩翼東은 日本의 와세다대학을 졸업한 후 大邱에서 「南鮮經濟日報」를 經營하고 있었으며, 大邱商工會議所 副會長까지 지낸 바 있는 지방의 유력한 經營人이었다. 玄風普通學校에 재학중인 省谷을 大邱 達成普通學校로 편입시키고 모친이 大邱에서 旅館業을 경영하게 된 動機를 유발시킴에 있어서도 자형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된다. 어쨌든 省谷은 어려서부터 자형의 新聞社 經營을 목격하였고, 新聞에 대해서 어렵잖게나마 관심을 가졌던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리고 省谷이 新聞社 經營에 관심을 갖게 된 둘째 계기는 大邱 高普시절에 경험했던 新聞配達일 것이다. 省谷은 이 학교 학생 쪽 클럽인 蹤球部에서 매니저 역할을 했는데, 資金調達을 위해서 거의 1년 가까이 새벽에 新聞을 배달했다.<sup>3)</sup>

新聞社 經營에 관심을 갖게 된 세째 계기로 仁村 金性洙가 경영하던 東亞日報와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 省谷은 普成專門學校에 입학한 후 仁村에게서 받은 영향은 컸다. 그는 仁村의 총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흡모하여 인격형성에 큰 영향을 받았다. “눈에 선한 것은 그 분이 밀집 모자를 쓰시고 삼복 퇴약 별 속에서 運動場의 잔디밭을 가꾸시던 모습이었다”<sup>4)</sup>고 출회할 정도로 仁村의 행동을 매우려고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仁村의 事業까지도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였다. 결국 仁村이 창설한 京城紡織을 모방하여 金星紡織을 설립하였고, 普成專門의 經營을 모방하여 國民大學을 經營하게 되었다. 그리고 東亞日報의 영향으로 省谷은 新聞社를 經營하는 한편 多角的 활동으로 우리나라의 言論暢達에 功

3) 모친에게는 새벽 운동하려 간다고 하고, 배달지역도 일부러 집에서 멀어진 곳을 택해서 배달하였다고 한다.(上掲『逸話集』28면 참조.)

4) 金成坤「國民大學과 나」, 前掲『逸話集』417면.

을 세우게 되었다. 省谷은 普成專門 재학시에 仁村의 심부름으로 東亞日報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데, 현대적 시설을 갖춘 民族紙의 제작을 본 감회는 커울 것이다. 특히 東亞日報는 같은 達城出身이며, 普成專門의 先輩인 東庵 徐相日이 大邱支局長을 지낸 바 있으므로 더욱 관심이 커울 것임에 틀림이 없다.

## 2. 嶺南日報 · 大韓通信 · 東洋通信

省谷은 普成專門을 졸업한 후 大邱에서 三共油脂를 經營하여 기반을 잡았는데, 解放後에 三共油脂가 더욱 성장하게 되자 省谷은 韓應烈, 金泳佛 등과 더불어 地方言論機關의 설립에 참여하였다. 그리하여 1945년 10월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地方中立紙인 嶺南日報의 탄생을 보게 되었다. 省谷은 嶺南日報의 經營에는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나 言論機關의 經營에 대한 理念의一角은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그 후 6·25戰亂으로 省谷의 事業과生涯에 큰 변화가 야기되었다. 金星紡織 安養工場이 소실되었으며, 省谷은 人民軍에게 피남되었다가 구사일생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하여 大邱를 거쳐 釜山으로 피난하게 되었다. 피난지 釜山에서도 省谷은 言論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1951년 4월에는 국회의원 鄭一亨이 인수한 大韓通信 取締役(理事)에 취임하였다. 大韓通信은 미국의 UP 와<sup>5)</sup> 계약되어 있는 회사이다. 이것을 계기로 그해 10월에는 UN 軍從軍記者(UN War Correspondent) 자격을 취득하여, 日本도 왕래할 수 있었고,<sup>6)</sup> 事業에 대한 구상도 하였다.

大韓通信의 理事職 취임은 省谷으로 하여금 通信業務의 企業性에

5) UP는 United Press의 약자이며, 후일에 International News Services와 합병하여 UPI로 되었다.

6) 실제로記事를 쓰지는 아니하였지만, 계급장이 없는 軍服에 'PRESS'라는 완장을 달고 東京의 外人記者 클럽에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다고 한다. (前掲『逸話集』 59면 참조.)

대한 재인식의 기회가 되었다. 通信은 新聞의 新聞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신속성과 정확성을 요한다. 더구나 國際契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通信企業은 그것이 내포하는 國際性 때문에 행동반경이 넓어지고, 政治界에 미치는 영향도 커서 省谷의 취향과 부합하였다.

그러나 大韓通信은 外信 契約社인 UP에 通信使用料가 滯拂되고 있었다. 野黨系인 鄭一亨에 대한 압력의 방편으로 政府保有弗을 바꾸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UP측은 政府와 교섭해 보았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通信契約 상대를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그 대상자로 省谷을 선택하였다. 그는 財力도 있고 저널리즘을 몹씨 좋아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sup>7)</sup> “省谷은 UP측의 제안을 선뜻 수락하는데 신 鄭一亨 社長에게 사전 양해를 받아 달라는 조건을 내세웠다. 그동안 鄭社長이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大韓通信을 키워 왔는데,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것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sup>8)</sup>고 한다.

그리하여 1952년 3월에는 聯合新聞 梁又正 社長, 大韓通信 韓應烈 專務 등과 더불어 東洋通信 창간 준비를 하였고, 4월에는 UP와 계약을 체결하고 日刊 3便의 東洋通信을 창간하여 副社長에 취임하였다. 社長은 聯合新聞 社長 梁又正이 겸임하였고, 專務 尹應相, 常務 崔基涉, 梁再俊, 林元圭, 編輯主幹 金錫吉, 總務局長 朴濟植, 등 任員을 랄령하여 ‘嚴正中立’이란 社是 밑에 새 출발을 하였으나 얼마 후 聯合新聞의 鄭國殷 편집국장이 국체간첩단 사건으로 처형되고 梁社長도 그 사건에 휘말리어 新聞社 經營이 불가능하게 되자 이듬해 省谷은 東洋通信의 版權을 인수받아 社長이 되었고, 1954년에는 聯合新聞의 經營權까지 맡게 되었다.<sup>9)</sup> 省谷은 새 通信社의 명칭을 韓國通信으로 할 것을 구상하고 있었으나 결국 UP측의 의견

7) 同書 59면과 392면 참조.

8) 同書 59면.

9) 同上.

도 있고 해서 아시아 全域으로 雄飛한다는 뜻을 지닌 ‘東洋’을 택하게 되었다.<sup>10)</sup>

그 후 省谷은 東洋通信을 국내 굴지의 大通信社로 육성 시켰다. 經營面에서는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다가 1973년 4월에는 社長 자리를 洪升憲에게 맡기고 省谷은 會長에 취임하였다. 省谷이 東洋通信經營의 제일선에서 후퇴하였어도 東洋通信을 육성시키려는 열의에는 변함이 없었고, IPI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省谷은 평생동안 한국의 國際編輯人協會(IPI) 加入과 IPI 활동을 통한 국위 선양에 힘썼는데, 이것은 東洋通信을 經營함으로써 얻어진 인연이었던 것이다.

省谷의 IPI 會議 參席에 대해서는 후술할 것이지만, 그는 東洋通信社가 창설된 이후 적극적으로 言論外交를 했다. 이런 과정에서 言論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지 않던 국내 사정에서도 東洋通信은 최선을 다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을 보도해야 한다는 이념을 더욱 굳하게 되었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다. 그런 가운데, 1968년 6월 21일에는 “戰鬪態勢完備 3個年計劃確定”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가 이른바 軍機 누설 필화사건이 야기되었다. 그러나 省谷의 온갖 노력으로 東洋通信은 계속 발간되었고, 국내 굴지의 통신사로 성장하여 合同通信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省谷의 死後에는 사정이 달라졌다.

1980년 11월 14일에는 정부의 정책과 韓國新聞協會의 결의에 따라 東洋通信은 규모가 더 큰 合同通信과 통합하게 되었고, 1981년 1월 1일부터 「聯合通信」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省谷이 經營에는 관여하지 않고 투자만 했던 嶺南日報도 이 때 每日新聞에 흡수되어 1980년 12월 1일부터 새 題號인 大邱每日新聞으로 바뀌었다.<sup>11)</sup>

10) ‘東洋通信’에 ‘東’字가 들어 있어서 仁村이 세운 東亞日報의 ‘東’과 통하기 때문에 ‘東洋’과 ‘東亞’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으나 확실한 증거는 없다.(同書 59면과 392면 참조.)

11) 이 때 大邱每日新聞은 非社員을 제외한 156명의 嶺南日報 종업원을 받아들였다.

### 3. 聯合新聞·大邱文化放送

1954년 3월 省谷은 聯合新聞의 發행권을 梁又正으로 부터 引受받았고, 6월에는 정식으로 聯合新聞 發行인이 되어 등록되었다. 省谷이 인수할 당시 이 新聞은 發行부수가 3천 5백부에 지나지 않았고, 백여명의 종업원의 급료체불과 누적된 부채로 만미암아 發刊不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한다.<sup>12)</sup> 더구나 鄭國殷 前編輯局長의 국제간첩단 사건 때문에 이 신문의 이미지가 손상되어 發行부수가 크게 감소되는 추세에 있었다. 省谷은 폐업 직전에 있던 新聞社를 키우기 위하여 전력투구를 하였다. 그러나 經營이 궤도에 오를 무렵 중대한 시련에 부딪치게 되었다. 즉, 前經營陣 측에서 “株式發行前의 주식양도는 법률상 무효라는 法理論을 내세워 서울 地方法院으로부터 신문발행을 못한다는 가처분결정을 받게 되었던”<sup>13)</sup> 것이다. 그 결과 新聞發行은 중단되었으나 약 10일에 걸친 소송 끝에 승소하여 다시 發行하게 되었다.

그 후 수년간 聯合新聞의 社勢는 크게 확장되어 發行부수는 10만부를 돌파하게 되었고 종업원 수도 3백여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정치적 여건으로 보아 新聞社 經營은 그리 용이하지 아니하였다. 다른 企業보다도 新聞社 經營은 엄청난 마케팅費用이 소요되었고, 정치적 입김을 세게 받았다. 發行부수 중에서 많은 부분이 무료로 증정되었고, 發行부수가 적은 상태에서는 廣告收入에 한계가 있게 마련이었다. 그리하여 經營은 赤字를 면치 못하였을뿐만 아니라 집권당인 自由黨에서는 聯合新聞의 親野的論調를 못마땅하게 여겨 비난하였다. 聯合新聞은 準與黨紙였지만, 省谷은 신문 제작에 간섭하지 아니하였고, 늘 新聞의 中立性과 公正性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論調가 野黨的으로 흐르게 되었던 것이다.

12) 金成坤「聯合新聞을 떠나면서」, 前揭『逸話集』403면 참조.

13) 洪承萬「사나이 다운 사나이」, 同書 381면.

예컨대, 1958년에 國家保安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때 聯合新聞의 간부는 主要新聞의 간부들과 더불어 반대성명을 냈다. 그 후 이른바 保安法 파동으로 政界가 어수선하던 당시 東洋通信과 聯合新聞의 論調가 保安法 개정안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자 自由黨 民議員으로서 규탄되어야 한다는 공기가 自由黨 소속議員들 사이에 감돌았다. 그러나 省谷의 신념에는 변함이 없었다. 아무리 自由黨 소속의원이라 할지라도 反民主的인 言論彈壓에는 동조할 수 없으며, 또 言論機關 經營者로서 자승자박이 되므로 양심상 도저히 지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sup>14)</sup> 省谷의 회고담에 의하면, 聯合新聞은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현장을 사실대로 알렸으며, 馬山에서 최루탄이 얼굴에 박힌 채 죽은 金朱烈의 사진을 國際新報로부터 긴급 인수하여 中央紙로서는 땐 먼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리고 聯合新聞의 親野의 사실보도 때문에 협박과 정치적 압력이 가해졌고, 省谷이 經營하는 金星紡織에 대한 企業 사찰까지 당했다고 한다.<sup>15)</sup> 그리하여 이 때부터 省谷은 국회의원으로서 政治에 환멸을 품기 시작하였고, “自由黨의 墓手機 노릇을 해야하는 데 自責과 부끄러움을 느껴 정치 이외의 言論이나 育英 쪽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다”<sup>16)</sup>고 한다.

1960년 봄에 일어났던 4·19 革命은 부정과 부패에 관련된 新聞에 대하여 맹성을 촉구하고 응분의 심판을 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省谷金成坤先生略傳」에 의하면 “경악된 젊은 사자들은 서울신문사, 반공연맹청년단본부, 李起鵬, 崔仁圭 집 등을 차례로 불지르자 高大生들이 남대문의 聯合新聞社와 省谷의 신문로 자택을 자발적으로 찾아와 수호해 주었다”<sup>17)</sup>고 한다. 그리고 4월 25일에는 계엄령하의

14) 同書 420면 참조.

15) 2·4 파동 당시 反與黨의 신문을 만들었다고 해서 李起鵬 국회의장은 省谷을 반도호텔로 불러 10여명의 自由黨 당무의원들 앞에서 출판과 모욕을 주었으며, 聯合新聞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고 한다.(同書 403면 참조)

16) 同書 67면.

17) 同上.

서울에서 教授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거리로 나서자 서울은 또다시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로 소용돌이치기 시작하였는데, 이 때 省谷은 자유당 정권이 막다른 골목에 왔다고 판단하고 聯合新聞 편집국 간부들과 의논하여 李承晚 대통령의 下野를 권고하는 사설을 실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野黨紙라고 하는 신문들도 ‘正副統令 선거 다시 하라’고 주장할 정도인데, 準與黨紙인 聯合新聞이 놀랍게도 “李大統領의 下野를 요청하였다”<sup>18)</sup>고 한다.

당시의 李大統領 하야 요청은 보통의 용기로써는 어려운 일이었는데, 省谷은 자신의 불이익과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그 사설을 게재하도록 지시하였으니, 이것으로써도 그의 뛰어난 통찰력을 이해할 수 있다.

4·19 혁명 이후 우리나라의 言論機關은 재편성 과정을 겪게 되었고, 省谷은 그 해 6월 6년여에 걸친 사장자리를 전문적 言論人에게 맡기기로 결심하였다. 자신은 聯合新聞 회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京鄉新聞 주필을 지낸 李寬求가 사장이 되어, 7월에는 題號를 서울日日新聞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5·16 이후의 언론통제와 더불어 경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적자가 누적되었다. 그리하여 1961년 말을 기하여 이 신문은 발행이 중단되고 폐간하게 되었다. 서울日日新聞社에 근무하던 상당수의 종업원이 東洋通信社에 흡수는 되었으나 省谷의 사업 중에서 가장 실패한 것으로 그는 늘 自愧之心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sup>19)</sup>

省谷은 新聞・通信 뿐만 아니라 放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1971년 10월 1일부터는 大邱文化放送을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즉, 라디오 방송국이었던 大邱文化放送(MBC)과 嶺南텔레비전(YTV)이 통합되어 大邱文化放送株式會社로 발족하였는데, 그 후 1980년 12월에는 정부의 언론통폐합정책에 따라 雙龍 그룹은

18) 同上.

19) 同書 68면 참조.

經營에서 손을 뗄었던 것이다.

### III. 國際新聞編輯人協會와 省谷

言論에 관한 省谷의 업적 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IPI 즉 國際新聞編輯協會에 관한 활약이다. IPI에 한국이 국가단위로 가입하고, 국제언론인들이 한국을 더욱 잘 인식하여 공정하게 보도할 수 있는 길을 터놓는 것이 국가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省谷은 IPI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IPI는 서방의 대부분의 나라가 가입하여 국내위원회가 설치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言論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가입이 허용되지 아니하였다. 이와같은 사정을 인식한 省谷은 民議員에 당선된 이후 대외활동을 적극적으로 펴게 되었다. 1959년 5월에는 張基榮, 金鐘圭, 金圭煥, 朴權相 등과 함께 셔베를린의 IPI 총회에 참석하여 한국의 가입을 위한 로비활동을 하였고 그 해 12월에는 스위스 취리히로 가서 IPI 간부들을 만나 한국의 言論과 가입의 당위성에 대하여 설득시켰다.

省谷은 이 때 IPI의 한국의 가입불승인 정책은 IPI 규약과 정신으로 보아 타당치 않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즉, IPI는 한국에서 6·25 사변이 일어난 직후인 1951년 공산진영에 대해서 서방진영의 언론의 자유를 좌시하기 위하여 조작된 것이므로 한국을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며, 京鄉新聞이 폐간된 사실 하나만으로써 한국에 言論의 자유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한국의 특수성을 의면한 처사라고 하여 가입을 요청하였다. 省谷이 “IPI 본부에 가서 통감한 것은 IPI 역원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예상외로 바약하다는 것이었다. 일례를 들자면 京鄉新聞은 정부의 두번째 행정조치로 말미암아 소멸되어 버린 것으로 알고 있고, 大法院에서 아직 繫爭 중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형편이었다<sup>20)</sup>고 술회하였다. IPI의 言論自由의 개념은 自我規制 즉 쓰고 싶어도 의부로부터 오는 심리적 위협 때문에 스스로가 쓰기를 삼가하는 것을 포함하는 완전한 言論自由가 보장된 전제하에 국내 위원회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고 고집하였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납득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나 省谷의 끈질긴 노력에 의하여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였다.<sup>21)</sup>

省谷은 1960년 3월 日本 東京에서 열렸던 제9차 IPI 총회에도 옵서버로 참석하였고, 11월에는 취리히의 IPI 이사회에도 역시 옵서버로 참석하여 한국의 국가단위 가입승인을 받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1961년 2월 省谷은 IPI 正會員으로 가입하여 등록하였다.

IPI 會議參加表

年 月	内 容
1959. 5	IPI 총회 옵서버로 참석자 서독 등 방문
1959. 12	IPI 가입 교섭자 스위스 방문
1960. 3	東京 IPI 총회 옵서버로 참석
1960. 11	취리히 IPI 理事會에 옵서버로 참석, 한국의 加入 승인
1961. 5	텔아비브 IPI 총회에 참석
1962. 5	파리 IPI 총회 참석
1963. 6	스톡홀름 IPI 총회 참석
1964. 5	이스탄불 IPI 총회 참석
1965. 5	런던 IPI 총회 참석
1966. 10	뉴델리 IPI 총회 참석
1968. 5	나이로비 IPI 총회 참석
1969. 6	오타와 IPI 총회 참석
1969. 12	취리히 IPI 理事會 참석
1970. 5	홍콩 IPI 총회 참석
1971. 6	헬싱키 IPI 총회 참석
11	취리히 IPI 理事會 참석
1974. 5	京都 IPI 총회 참석

※ 前掲『逸話集』에 의하여 작성함.

20) 〔金成坤「IPI 加入展望」〕, 『新聞評論』1959년 12월 28일, 前掲『逸話集』401면.

21) 同上.

省谷은 한국을 대표해서 거의 해마다 IPI에 참석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였다. 더구나 1969년 6월 카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IPI 총회에서는 IPI 집행부理事로 선임되어 IPI理事會에까지 참석하게 되었다. 그 해 12월 동理事會에 참석차 스위스에 갔을 때에는 사무국장을 만나 大韓航空機 남북으로 돌아오지 않은 2명의 言論人과 탑승자들의 송환을 교섭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5월 홍콩에서 열렸던 IPI 총회 참석자 중 24개국 言論人을 우리나라에 초청하여 실정을 소개하였다.

위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省谷은 東洋通信社가 창설된 이후 적극적으로 言論外交를 했다. 그리고 UPI와의 업무협의차 미국과日本을 자주 왕래하면서 세계의 言論界에 비중이 컸던 UPI 간부들과도 사귀었다. IPI 총회와 이사회에省谷이 참석한 것은 17회에 이른다. 言論界에 대한 공적은 반드시 국제회의의 참석회수에 비례한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省谷의 활약은 言論과 국위선양이란 차원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言論의 自由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지 않았던 사정에서 한국이 IPI에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은省谷의 활약에 힘입은 바 컸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省谷은 16년 동안 한결같이 IPI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 기회를 통하여 국제적 시야를 넓혔을 뿐만 아니라 言論의 자유에 대한 신념을 더욱 굳혔던 것이다.

#### IV. 言論波動과省谷

省谷은 직접 글을 쓰지는 아니하였으나 言論人으로서 큰 긍치를 가지고 言論機關의 經營과 言論暢達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는 정치적으로 여당에 속하면서도 일당독재를 싫어하였고, 言論의 자유를 쟁취하려고 노력하였다. 1958년 國家保安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때 개인적 불이익을 각오하고 이를 반대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이지만, 우리나라 言論界에 대한 省谷의 수완은 이른바 言論波動의 수습에 있어서 잘 나타내고 있다. 省谷 자신도 “만족했던 일 가운데서 지금도 흐뭇하게 회상되는 것은 言論波動 수습에 관여한 사실이라”<sup>22)</sup>고 지적하였다.

1964년 8월 3일 국회는 言論統制의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言論倫理法案을 통과시켰다. 그리하여 8월 10일에는 全國言論人大會가 개최되어 言論人은 모든 협력을 거부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9월 5일에는 朴大統領이 특별담화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合法的 절차로 공포된 言論倫理法은 國法으로서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 때 居中調停에 나서서 言論倫理法의 시행보류를 발표하게 한 것은 省谷이었다. 言論倫理法으로 政府와 言論界가 맞서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는데, 省谷의 조정에 의하여 수습되었고, 朴大統領은 9월 9일 저녁에 그 法의 시행보류를 발표하게 되었다.

省谷은 朴大統領이 儒城 萬年莊 특호실에 투숙한 기회를 포착하여 대통령과 言論界 대표들과의 「儒城會談」을 주선하는 데 성공하였다. 朴大統領은 일단 공포된 國法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여 완강하게 나왔으나 省谷이 끈질기게 설득시켜 합의를 보았고, 회담일은 9월 7일로 정하였다. 이 날 省谷은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먼저 단독회담을 하였고, 이어서 高在旭·劉鳳榮·洪鐘仁·金圭煥·金光涉·李桓儀 등 각급 言論界 대표가 동석하였다. 이것은 朴大統領이 집권한 이후 최초의 言論界 대표와의 대화였으며, 우리나라 言論暢達의 성폐문제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회였는데, 省谷이 機智로써 딱딱한 분위기를 잘 조정하여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갔다고 한다. 그리하여 결국 40일에 걸친 言論波動은 일단락되었다. 言論倫理法의 시행보류는 9일 아침 朴大統領 주재하

---

22) 金成坤「6대 국회 3년생의 獨白」, 嶺南日報 1966년 3월 12일, 前揭『逸話集』 405면.

에 개최된 政府와 與黨의 연석회의에서 그 방침이 결정되었으며, 오후의 共和黨議員總會에서 양해되었다. 그리하여 10일 개최하기로 되었던 言論倫理委員會의 소집은 연기되었고, 言論의 自律的倫理規制 형식으로 마무리 되었다.<sup>23)</sup>

이 때 省谷은 居中調停하느라고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만났고, 言論界 인사들을 수시로 만나서 대책을 논의하였고, 최종적으로 言論倫理法의 시행은 보류되었지만, 9월 9일에는 共和黨議員總會에서 省谷의 활약을 이단시하여 규탄하였다. 그러나 省谷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었다. 省谷은 당시 國會財經委員長이었고, 言論政策에 대한 직접적 책임은 없었으나 言論機關의 經營者로서 또는 大企業의 경영자로서 개인에게 돌아올 불이익은 생각치 않고 言論倫理法의 시행보류를 전의하여 성공시켰던 것이다. 즉, 軍出身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조직 속에 民間出身인 省谷이 끼어서 경화된政局에 윤활제 구실을 하면서 言論의自由를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이다.

## V. 省谷言論文化財團의 成立

言論波動 때 省谷이 調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國회 財經委員長으로서의 정치적 힘과, 居中調停의 名手라고 불리어질 정도의 천부적 소질과 능력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한편 言論界에 쌓은 업적과 東洋通信社 代表理事라는 직위도 작용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 東洋通信은 1980년 政府의 言論機關 통폐합정책에 따라 해체되었고, 1971년에 인수했던 大邱文化放送도 이 때 雙龍系列에서 떨어져 나갔다. 결국 省谷이 타계한지 수년 후에는 雙龍은 言論機關의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 셈이다.

즉, 省谷의 여러 事業 중에서 言論機關의 經營은 예컨대, 정치적

---

23) 李孝祥「백수전달이나 할 것이지」, 前揭『逸話集』320면 참조.

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사상한다면 궁극적으로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省谷이 원대한 뜻을 가지고 세운 省谷言論文化財團은 꾸준히 본래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 그 설립이유는 言論波動 이후 自律規制의 강화라는 실행조건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言論인의 전문적 직업인으로서의 소양의 확립이 중요시되어 그와 같은 言論人을 시급히 육성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言論이 진정한 사회의 거울과 목탁이 되기 위해서는 言論인의 질이 높아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良識 있는 우수한 言論人에 의한 言論이 진정한 사회의 거울이 되고 목탁이 될 때 政治는 正道를 걷게 되고 政治가 잘 되면 經濟가 발전하여 貧益富하는 이상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sup>24)</sup> 그리하여 省谷은 1964년 4월 韓國新聞研究所 設立에도 관여하여 基金을 회사한 바 있지만, 그것으로써 만족하지 아니하였다. 言論에 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인재를 선진국에 파견하여 연구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이 더욱 시급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1964년 8월의 言論波動 이후 구체적으로 구상하여 오면 省谷言論文化財團設立計劃을 이듬해 4월에 발표하게 되었다. 同財團設立에 관여하였던 金圭煥의 회고에 의하면 “이것은 미국의 ‘니만’ 재단, 영국의 ‘톰슨’ 재단에 이어서 그 당시 세계에서도 예가 드문 재단이었다”<sup>25)</sup>고 한다.

財團設立에 따른 定款 작성에는 金圭煥 이외에 朝鮮日報 崔錫采主筆과 孫錫度 변호사가 협력하였다. 약 반년의 준비과정을 거쳐가지고 省谷言論文化財團은 1965년 9월에 정식으로 설립되어 재단법인 등록을 했다. 理事長에는 柳光烈이 취임하였고, 理事에는 高在旭·方一榮·洪龍澤·金永浩·金世玩·元瓊, 監事에는 金成坤 자신과 洪鐘仁이 취임하였다. 財團의 운영은 言論界的 중진들로 구성

24) 金圭煥 「企業利潤의 社會還元에 앞장」, 前揭『逸話集』148면. 金成坤 「貧益富·富益富 경제로」, 嶺南日報 1967년 1월 15일. 上記『逸話集』410면 참조.

25) 金圭煥 前揭論文.

된 運營委員會에 일임하였고, 省谷은 표면에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며, 초기에는 자신이 經營하는 東洋通信 社員을 수혜자로부터 제외 시켰다.<sup>26)</sup> 省谷은 별세하기 1년전인 1974년 2월에 韓國新聞研究所會長에 선임되었으나 이 때에도 역시 재정적으로 지원을 했을 뿐이고 연구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다. 오직 企業의 利潤을 社會에 환원한다는 일념에서 출연하였고, 그 자금이 사회를 위하여 적절하게 사용되기만 하면 그것으로써 만족하였다 것이다.

省谷文化財團은 1968년에 설립된 省谷學術文化財團과 쟁벽을 이루는 財團法人이다. 후자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연구가 부진하고 자연과학부문에 비하여 연구비 지원혜택이 적은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연구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에 대하여 省谷言論文化財團에서는 言論人을 위한 세미나 개최와 전문적 직업인으로서의 언론인의 소양화를 위한 해외유학 지원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즉, 해마다 해외에 유학생을 파견하여 言論의 연구를 도와주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수혜자는 鮑于煇를 비롯하여 9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sup>27)</sup>

## VII. 言論機關의 經營

앞에서 본 바와 같이 省谷이 經營하던 聯合新聞은 서울日日新聞으로 改題되었다가 1961년에 폐간되었고, 東洋通信은 政府의 言論統廢合政策에 따라 省谷의 死後에 폐간되었으며, 大邱文化放送도 이 때 經營權이 넘어갔다. 經營의 鬼才인 省谷도 言論機關의 經營만은 뜻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經營管理의失敗는 아니었다. 崔錫榮의 표현을 빌리면 “이 나라 形勢가 뜻과 달리 전개되어 省谷의 遺志에서 어긋났던”<sup>28)</sup> 것이다.

26) 同上.

27) 雙龍그룹 弘報室이 提供한 資料에 의함.

28) 金成坤「省谷」週刊한국 1970년 11월 18일, 前揭『逸話集』397면 참조.

省谷의 言論機關經營에 대해서는 앞에서 부분적으로 언급하였다. 言論機關의 經營이나 理念도 일반 企業體의 그것과 기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겠으나 여기서는 그 特徵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려고 한다.

指導者型 企業家로서의 理念的 特徵은 言論機關의 經營에 있어서도 잘 나타나 있다. 經營에 있어서는 시종일관 民族觀과 國家觀이 부각되어 있으며, 國益優先思想이 전제되어 있다. 이것은 仁村 金性洙의 先公後私思想과도 통하는 것이다. 눈앞의 利益보다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公益을 생각했으며, 速成보다는 晚成을 모토로 하고 큰 材木으로 쓸 수 있는 苗木을 가꾸는 마음으로 企業을 經營하였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발달을 위하여 言論自由는 생취되어야 하고 言論機關은 육성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의지로 言論機關을 경영하였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노력도 하였고, 人材養成을 위한 투자도 하였다.

人材養成을 위한 투자는 言論 부문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言論人의 養成을 위한 言論文化財團의 설립은 값진 企業利潤의 社會還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사람은 돈을 벌기 보다는 쓰기보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돈 쓰는 법을 배우려고 했으며,<sup>29)</sup> 돈만 아는 企業人을 나무랐다. “장사라고 해서 무조건 이윤만을 남기기 위하여 企業을 하는 시대는 지났고, 國民의 企業이라는 기본 입장에서 社會的 責任을 완수하여야 한다”<sup>30)</sup>는 지론을 가지고 言論機關을 經營하였다. 省谷은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철칙으로 하여 勤儉節約하고 踏實無以 革新을 향하여 도전하는 企業家였으며 企業利潤의 社會還元을 실천할 줄 아는 企業家였다.

정치적 격변기에 있어서 言論機關을 창립하여 經營한다는 것은 일종의 모험이었다. 기대되는 利潤率이 낮고, 정치적 변수로 인한

29) 新亞日報 1973년 9월 14일, 前掲『逸話集』433면 참조.

30) 東亞日報 1973년 9월 14일, 上掲『逸話集』429면.

위험에 빠를지도 모를 言論事業에 투자한다는 것은 모험이었으나, 省谷은 國益的 차원에서 평생을 言論機關의 육성과 言論暢達에 노력하였다. 政治家로서 훤은 칼보다 강하다는 잠재의식이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그것만으로는 그러한 집념이 나올 수 없다. 言論에 대한 國益的 價值觀이 강한 成就慾求를 유발시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慾求와 成就度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省谷은 이와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전문적 言論人에게 應分分擔시키는 經營方針을 채용하였다.<sup>31)</sup> 자신은 직접 편집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方向만을 제시하였다. 즉, 사람을 잘 써야하고 한번 쓴 사람은 믿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며, 각자의 능력에 맞는 일을 맡겨서自律의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言論機關을 經營함에 있어서 한결같이 제시된 기본방향은 言論正道였다. 言論이 正道를 가려면 中立을 지켜야 하고 사회의 公器 역할을 해야 한다. 聯合新聞이 準與黨紙이면서도 親野黨의 논조로 나갔던 것은 省谷의 이와같은 理念 때문이었다. 그리고 省谷이 직접 經營하던 6년여의 기간동안에 聯合新聞의 發行部數가 3천여부에서 10만부를 돌파하게 되었던 것도 이와 같은 經營의 성과였다고 생각된다.<sup>32)</sup>

## VII. 結　　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省谷이 심혈을 기울였던 聯合新聞은 서울日新聞으로改題한 이듬해(1961년)에 폐간되었고, 그가 별세한 지 5년후인 1980년에는 정부의 言論機關 통폐합정책에 따라 東洋通信도 폐간되었으며, 이 때 大邱文化放送도 雙龍에서 손을 뗐다. 省

31) 金元基「國會財經委의 그 멋진 司會 솜씨」, 前掲『逸話集』178면 참조.

32) 金成坤「聯合新聞을 떠나면서」, 聯合新聞 1960년 6월 28일, 前掲『逸話集』403면 참조.

谷이 창설한 省谷言論文化財團만이 존속되어 그 나름대로의 업적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經營에 친재적 소질을 가졌던 省谷도 言論機關의 經營  
에 있어서는 성공하지 못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정치적 변수  
가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言論機關의 經營은 그 과정  
에서 얻는 간접적 이익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백 퍼센트 실패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고 본다. 즉, 대량전달 수단인 新聞을 經營하고,  
여론조성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정치적으로 유  
리할 뿐만 아니라 事業經營에 있어서도 간접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省谷은 이와 같은 이익을 향수하였을 것으로 생각  
된다.<sup>33)</sup> 한편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言論機關에 대한 그의 투자는  
헛되지 아니하였고, 言論暢達·雇傭 등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言論機關의 經營에는 성공하지 못하였으나 言論界에  
미친 영향은 컸다고 말할 수 있다. 言論波動을 수습하여 言論倫理  
委員會法의 시행을 보류시킨 것은 미봉책이기는 하나 言論界的 개  
가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가 개입하여 조정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성취될 수 없는 업적이었다. 그리고 한국의 IPI 가입을 위한 그의  
노력도 과소평가 될 수 없다.

그는 평생 동안 言論人임을 자부하면서 국내외의 많은 言論人們과  
사귀었다. 학문적으로 깊이 연구하는 유형은 아니었으나 옆에서 言  
論研究를 도와주는 데 보람을 느꼈고, 言論人과의 대화를 통하여  
여러 가지 정보를 얻었고, 사업의 전망도 하였을 것으로 본다. 이  
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雙龍 그룹의 형성과 言論機關의 經營은 무  
관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金柄夏·啓明大 教授／權丙卓·嶺南大 教授)

---

33) 前揭『逸話集』60면 참조.



# 省谷의 體育活動과 企業 및 體育界에 미친 影響

襄 守 鎮

## ◊ 目 次 ◊

I. 序 論	
1. 研究의 目的	2. 研究의 方法 및 範圍
II. 雙龍 그룹의 現況	
III. 學窓時節의 體育活動	
1. 高普 시절	2. 專門學校 시절
IV. 省谷의 體育活動과 業績	
1. 헬싱키 올림픽의 後見人 · 高大體育會長	
2. 高大體育人의 精神的 支柱	
3. 朝鮮武術會와 省谷旗爭奪 全國柔道大會	
V. 結 論	

## I. 序 論

### 1. 研究의 目的

현대 社會에 있어서는 產業이 고도화되고 經營活動이 복잡·다기  
하여지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한 나라의 경제발전 과정은 그 나  
라의 企業의 成長過程이며 기업성장의 勝敗는 그 나라 경제발전을  
좌우한다고 말할 수 있다. 近代資本主義 발전과정에 있어서 자본주  
의 精神의 본질을 ‘企業家精神’에서 구하고 企業家를 ‘革新의 推進

者’로 규정하고 있음도 기업가를 경제발전의 주체로 평價하고 기업가의 經營革新 능력과 社會的 責任을 매우 重要視하기 때문이다.<sup>1)</sup>

근래, 기업가의 經營哲學이 현대사회에 한층 더 중요한 의의를 부여함에 따라 시대의 흐름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기업가정신의 발현과 企業家의 혁신수행력 향상이 더욱 절실해져 가고 있다.

정신적인 건전성은 육체의 강건을 겸비했을 때 비로소 안정되고 또 創造力を 발휘할 수 있다.<sup>2)</sup> 원시사회에서 우리 조상들이 자연과 야수와의 투쟁에서 이기고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강한 體力 때문이었으며, 그후 생명을 유지하고 文化를 창조하면서 생활할 수 있었던 것도 강한 體力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현대 교육의 이념인 전인적 인간형성에 있어서 심신의 건강이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이와 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sup>3)</sup> 운동을 통하여 인간을 변화시키자는 것이 바로 體育이기 때문에 體育은 知育·德育과 더불어 教育의 한 분야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체력은 바로 國力”<sup>4)</sup>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金敎植의 표현과 같이 “기업인이자 정치가이며 막후 교섭의 명수, 드라마틱한 일생을 살고 간 카리스마적 보스·「콧수염」과 「S.K.」로부터 유명했던 省谷 金成坤의 거침없이 내뿜는 의욕과 저돌적인 추진력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sup>5)</sup>?” 필자는 오늘날 大雙龍 그룹으로 육성 발전된 것은 省谷의 體育으로 단련된 불굴의 투지와 그리고 끈질긴 집념의 결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省谷과 體育’을 연구하고자 하는 근본 목적이 여기에 있다. 즉, 본 연구는 體育과 大成한 企業家와의 관계에 관한 事例가

1) 金柄夏, 大邱經營史研究會, 創立趣旨文(1986) 참조.

2) 大學體育教材編纂會編, 『大學體育』, 大邱大學校出版部, 1983, 1면.

3) 同書 2면.

4) 同書 7면.

5) 金敎植, 韓國財閥『雙龍그룹—金成坤』, 서울, 粟谷文化社, 1986, 209면.

될 수 있기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2. 研究의 方法 및 範圍

위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위한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자료를 활용한 實證研究를 주로 하였으며, 體育會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면담하고 얻은 구술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을 병행하였다. 研究範圍는 省谷의 體育活動과 業績이 體育界에 미친 영향에限定하였으나 그것이 省谷 개인과 雙龍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도 간접적으로 암시 하려고 노력하였다.

體育과 企業人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처음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社會人 내지 體育會 실무자들의 협조와 자료수집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이와 같은 사정 때문이었다.

## II. 雙龍 그룹의 現況<sup>6)</sup>

省谷이 타계할 당시인 1975년 쌍용의 계열기업은 주식회사 쌍용을 비롯하여 양회, 보험, 제지, 해운 등의 회사로 네 간매출액은 7백 97억 원, 총자산은 1천 75억 원, 종업원은 4천명선이었다. 그후 쌍용은 <도표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유, 중공업, 종합건설, 기계제조, 전자, 컴퓨터 등 업종이 새로 추가되어 다각적인 경영을 하게 되었고 사세가 확장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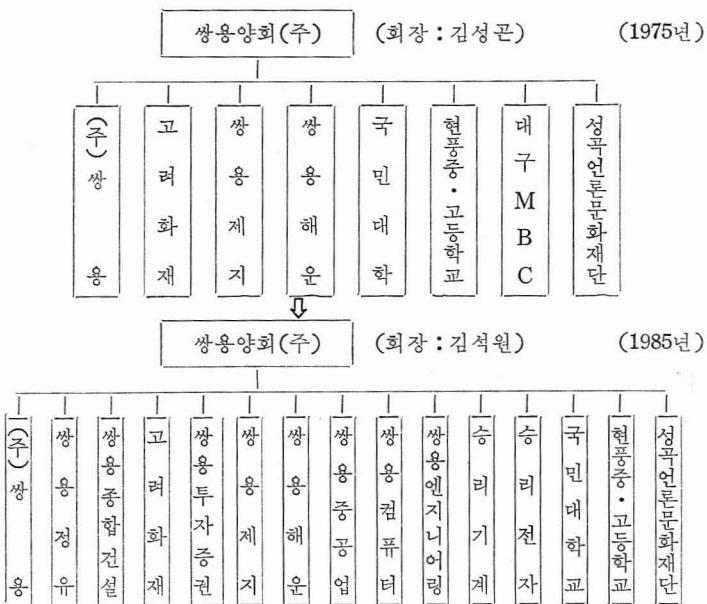
쌍용은 1984년 말 현재 그룹 매출액이 2조 8천 6백 45억 원, 순이익은 1백 58억 원으로 국내 계열 그룹 중 6위를 차지하고 있다.

省谷의 타계 후 84년 현재 총매출액은 26배, 자산총액은 23배, 계열기업체 수는 2.8배로 늘어 쌍용그룹의 성장은 <도표 II-1>에서 와 같다.<sup>7)</sup>

6) 박인호, 「향토서 자란 대기업—쌍용그룹」, 대구매일신문, 1985년 7월 24일 6면, 7월 25일 6면.

7) 尹重成, 상신개발주식회사 대구사업소장과의 대화에서 요약.

### 〈도표 II-1〉 쌍용그룹의 성장



### III. 學窓時節의 體育活動

## 1. 高普시절

1922년 省谷은 협통보통학교 4학년 때 달성공립보통학교에 전입 학하여 6학년 때에 전교 학생대표로 뽑힐 정도로 學業成績·리더쉽 등 여러 면에서 뛰어났다고 한다. 1929년 大邱高普시절, 省谷은 가정형편이 어려웠으나 무엇이나 잘 먹는 대식가로 소문이 날 정도로 식욕이 왕성하였고, 운동을 열심히 하여 몸의 근육이 잘 발달하였다고 한다. 그는 大邱高普 축구팀에서 라이트 하프백, 골키퍼 등 만능선수로 활약했다. 당시의 大邱高普 축구부는 학교가 경비를 부담하는 운동부가 아니었다.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들끼리 모여서 불

을 차는 과외씨클과 비슷한 것이었다. 볼을 차다가 찢어지면 으레 그것을 그가 기웠고, 연습이 끝나면 부원들을 데리고 호떡집으로 가곤 했다. 따라서 학교에서 임명하지도 않았으나 매니저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가 그렇게 뒷바라지한 大邱高普 축구팀은 경상북도 선수권대회에 출전해서 우승한 적도 있었고, 全朝鮮中等學校 축구 대회에 경북대표로 출전해서 결승전에서 준우승하였다. 그 대회에서 그는 그라운드를 종횡무진으로 누비며 활약하던 라이트 하프백으로 유명했다.<sup>8)</sup>

1933년 金成坤은 普成高普 4학년에 편입시험을 치루어 학과성적은 뛰어났으나 大邱高普 시절 反日學生運動의 주동자라는 점을 들어 日本人 교사들 전원이 반대하여 편입이 불가능했다. 그 무렵 普成高普 축구팀은 어느 대회에서나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히는 막강한 팀이었다. 그리하여 省谷은 축구선수라는 명목으로 편입학 할 수 있었다. 원래 운동을 좋아하는 데다가 축구특기자로 편입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그의 普成高普 시절은 운동에 치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普成高普 축구팀은 金成坤이 입학한 후부터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 그리고 한편 편입학과정에서의 쓰디쓴 체험은 은연중 그로 하여금 확고한 민족의식을 갖게 했으며, 그 민족의식으로 해서 그는 일본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습관이 생겼다.<sup>9)</sup>

## 2. 專門學校 시절

金成坤은 普成專門學校에 進學한 뒤로는 출곧 유도부에 속하게 되었다. 고보시절에도 유도는 했었지만 專門學校 때처럼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았었다.

1936년 보성전문 2학년 때 일이었다. 여름방학이 되어 大邱로 내려갈 때는 무전여행겸 걸어가기가 일쑤였다. 가다가 학우 집이 있

8) 전범성, 『김성곤—쌍용창업비화』, 서울, 서문당, 1984, 11~13면.

9) 同書「經營의 제5조건」, 12~13면.

는 곳에 이르면 그 학우집에 들려서 신세를 졌다. 학우가 없는 고장에서는 경찰서 유도장을 찾곤 했다.

그때 김천에 사는 친구가 의가에 가고 없었기 때문에 김천경찰서 유도장을 찾아 갔던 것이다. 그당시 김천경찰서 경무계장으로 있던 사구라이가 유도부장이었다. 金成坤과 5판 3승 시합에서 3대2로 지고, 그는 김성곤을 판사에 데려가서 자기 부인까지 소개하면서 먹여 주고 재워 주고 한 일이 있었다.

그후 사구라이와는 유도가 인연이 되어 정중한 대우를 받았다. 그의 유도실력은 그만큼 알아 주었다.<sup>10)</sup>

1935년 11월 어느 날 제9회 全日本高專 럭비선수권대회 朝鮮(예선) 決勝戰이 서울운동장에서 普成專門과 水原高等農林學校와의 대전이 있었다. 양팀은 연속 3년째 조선해권을 겨루었다. 水原高農은 官立이며 학생 대다수가日本人이었다. 따라서 이 시합은 朝鮮人學校와日本人學校의 대전인 셈이었고 그 대전은 눈에 띄지 않는 민족감정의 대결이기도 했다. 그날의 시합은 普成專門팀이 우세한 가운데 경기가 진행되고 있었다. 럭비부장이었던 洪教授가 기분이 좋아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어가 사이드라인을 따라 다니며 普成專門팀 선수들을 격려하고 코치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일본인 학생들이 뛰어나와서 洪教授에게 달려들며 퇴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퇴장하지 않으니 일본인 학생은 단도를 꺼내 보이면서 불손한 언사로 洪教授를 위협했다. 그 광경을 본 普成專門 응원단 학생들이 우우 와와 하고 뛰어나가 그 일본인 학생을 때리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양교 응원단 학생들 사이에 일대 난투극이 전개됐다. 그 때 金成坤의 유도실력은 2단이었다. 그는 비호같이 난투전 속에 뛰어들어 가서 유도 2단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후고 水原高農 학생 일당이 그를 둘러쌌다. 그 순간 金成坤은 그들의 타겟트가 되어 그 때 맞은

---

10) 同書 17면.

부상으로 한달간 기브스를 하고 다녔다.<sup>11)</sup>

金成坤은 2학년 말 유도 3단이었고 3학년이 되자 유도부의 주장 을 맡게 되었다. 그 당시 普成專門에서는 호걸단인 겸도부 주축멤버와 학생회를 방어하는 유도부 주축구성원파의 대립이 격심해졌다. 초여름 어느 날 늦은 오후 金成坤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호걸파의 한 간부 학생이 찾아와서 양파간의 평화 공존을 위해 대화를 제의했다. 그래서 그는 호걸단 간부를 따라서 교사 뒤로 갔다. 교사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툭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는 의식을 잃었다. 별안간 둔기로 뒤통수를 얻어 맞았던 것이다. 그 사건으로 호걸단 일당이 학교 당국에 의해 엄한 징계조치를 당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인 金成坤의 진정으로 호걸 단파에 대한 징계 범위를 극소화시킬 수 있었으며, 그것이 계기가 되어 양 파벌간에는 화해의 무드가 짹트기 시작했던 것이다.<sup>12)</sup> 여기에서도 그의 대범한 인간성을 찾아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성격은 그를 대 사업가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본다.

## IV. 省谷의 體育活動과 業績

### 1. 헬싱키 올림픽의 後見人 · 高大體育會長

1952년 헬싱키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하여 日本 東京에서 한국 선수단은 훈련에 열중하고 있었다. 省谷은 약 50일간 올림픽 취재를 위해 선수단과 동행하였다. 그는 훈련장마다 찾아 다니면서 선수와 임원들을 격려했다. 때로는 훈련이 끝난 뒤 普成專門 후배들만 따로 불러 은밀히 식사대접을 하고 격려하기도 했다. 한국선수단은

11) 同書 140~141면.

12) 同書 34~35면.

투박한 그의 의모에도 끌렸지만 춥고 배고픈 사정을 소상히도 알아서 마음 써주는 훈훈한 경에 매료될 정도였다.

그의 배려로 해서 普成專門 후배선수들은 헬싱키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올렸다. 그리고 1967년 2월에 省谷이 高大體育會長職을 맡고 부터는 高大體育會는 일사불란한 단체로 기반이 다져졌다. 그는 어느날 高延戰이 열리고 있는 서울운동장에 왔다가 그의 마음에 꼭 드는 후배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바로 그 다음날 그를 유학보내기로 결정하였다. 단 하루의 만남을 통해 省谷은 한 인간의 됨됨과 장래성을 알아낸 것이었다. 그 청년이 뒤에 한국 체육계의 지도자로 등장했음을 재론할 필요도 없다.

뒤에 측근이 省谷에게 어떻게 잠깐 만난 청년에게 그런 과격적 기회를 줄 수 있었느냐고 물어 보았다. 그의 대답은 또 한번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 청년을 만난 건 몇 시간에 불과하지만 그 청년에 관해서 알아볼만 한 것은 다 알아 보았다는 것이었다. 출생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청년에 관한 모든 사항을 省谷은 측근을 시켜 철두철미하게 파악한 다음 유학시킬 것을 결정했던 것이다. 신속한 결단의 뒤에 숨어 있는 省谷의 치밀성을 보여준 일화라고 할만하다.<sup>13)</sup> 여기에서도 經營의 치밀한 意思決定을 볼 수 있다.

## 2. 高大體育人의 精神的 支柱

省谷은 高延戰이 있을 때면 서울운동장에 자주 나타나 본부석에는 가지 않고 스코어보드 밑에 쭈그리고 앉아 면 빌치로만 경기를 관람했다. 예컨대, 하루는 徐潤福이 다가가서 본부석으로 안내를 했는데, “나 왔단 말 하지 말어” 하고 거절하였다.<sup>14)</sup>

그래서 省谷이 서울운동장에 다녀간 일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하루 이틀이 지난 뒤에야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지곤 했다. 그도

13) 金晟集「헬싱키 올림픽 후견인」, 省谷傳記刊行委員會, 『별일 없제一省谷 金成坤先生 逸話集』 166~167면.

14) 徐潤福「體育人의 精神的 支柱」, 同書 259~260면.

그럴것이 省谷은 운동장을 다녀가면서 늘 선물을 남기고 갔으니 말이다. 때로는 희식비를 주고 가기도 했고, 유니폼을 맞춰주기도 했다. 그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고대 선수단에게는 은연 중에 省谷이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省谷의 소탈하고 소박한 성격을 알 수 있다.

### 3. 朝鮮武術會(武德殿)와 省谷旗 爭奪 全國柔道大會

1945년의 8·15 광복은 대구지방의 유도발전과 유도인 단합을 위해서 새로운 전기를 열어 주었다. 그것은 그때 9월 辛道煥이 우연히 日本 武具店 商人 野村을 만났는데, 그는 日本의 패당으로 귀국함에 따라 자기가 경영하는 武具店의 장비와 商品 전부를 넘겨 준다는 것이었다. 그는 유도인을 찾으려고 애썼는데, 그것은 유도를 발전시킨다는 조건으로 그의 재산을 위탁받을 수 있는 착실한 유도인이 필요했던 때문이었다. 유도의 보급에 노력하면서 武具店을 경영하던 일본인의 재산처리를 궁리했다. 그리하여 유도인으로 사업에도 경험이 많은 省谷을 최적임자로 판단하고 찾아가서 그 경위를 말하고, 유도발전의 터전을 닦아줄 것을 부탁했다. 다음달인 10월에는 大邱시청 동편에 있는 ‘武德殿’을 인수하여 「朝鮮武術會」라는 간판을 걸게 되었다.<sup>15)</sup> 이때부터 大邱·慶北의 유도인·검도인들은 이 곳을 도장으로 삼아 심신을 단련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대구유도가 전국유도를 앞장서서 끌고 가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省谷의 타계 후 1976년부터 시작한 성곡기쟁탈 전국유도대회가 대한유도회와 쌍용그룹 공동주최로 大邱에서 개최되어, 해를 거듭 할수록 발전하고 국내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대회로 성장한 것은 참으로 보람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에는 또 그 유족들이 이것을 국제적인 대회로 격상시키려고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15) 辛道煥「技와 德 경비한 유도인」同書 276~280면.

※ 상신개발 대구사무소장과의 대화에서 옮김.

省谷의 體育 업적을 추모하기 위한 성곡기 쟁탈유도대회는 1986년 현재 11회를 맞이 하였으며, 이와같은 축적은 한국유도 종종의 계기가 되고 있다. 즉, 이 대회로 인해 배출된 우수선수들이 가장 많고,<sup>16)</sup> 국위선양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sup>17)</sup>

그 밖에도 省谷은 體育界에 많은 업적을 쌓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 <표 Ⅳ-1>와 같다.

<표 Ⅳ-1> 성곡의 체육활동관계 연표

- 1913. 8. 15. 경북 달성군 협동에서 출생
- 1929. 4. 대구고보 축구선수겸 매니저 경북대회 우승  
전국대회 준우승
- 1933. 4. 4. 보성고보 축구선수
- 1936. 4. 보성전문 유도부장 및 떡육부장
- 1952. 7. 19. 헬싱키 올림픽 현지 취재, 한국기도회(승마) 이사장
- 1956. 금성방직(주) 축구부 부장
- 1954—1959. 경북체육회 회장 취임
- 1958. 8. 14. 국회 스포츠 구락부 빌족, 잔사장에 선출
- 1960. 1. 9. 경북체육회 주최로 대구문화극장에서 해외체육계 시찰 귀국  
강연
- 1960. 3. 2. 대한유도연맹 회장에 피선(제3대)
- 1963. 2. 1. 대한유도연맹 회장 피선(8,9대 연임)
- 1967. 2. 21. 고려대 교우체육회장에 피선
- 1968. 3. 26. 대한체육회 고문
- 1969. 1. 21. 대한유도연맹 명예회장
- 1969. 1. 29. 고대력비축구 OB 팀 고문
- 1969. 5. 1. 서울칸트리클럽에서 열린 여·야의원 글프대회에서 디어리스  
트상 수상
- 1969. 5. 28. 아세아주 글프연맹(AGC) 회장 피선
- 1969. 10. 30. 경북실내체육관 건립기금 1천만원 회사  
(총공사비 : 4억 2천만원, 국고 1억, 도비 2억, 민자 1억 2천  
만원)
- 1970. 7. 11. 체육유공자 표창 받음

16) 大韓柔道會, 雙龍그룹, 제11회 성곡기 쟁탈 전국유도대회, 李相淵 환영  
사, 1986. 7. 대구실내체육관.

17) 박인호 前揭 「향토서 자란 대기업 쌍용그룹」.

1970. 7. 15. 고대에 응원북·‘통일고’ 기증  
 1971. 9. 19. 여·야의원 축구대회에서 감투상  
 1973. 12. 5. 유도 8단으로 승단  
 1975. 2. 22. 도봉산 등산(백운대)  
 1975. 2. 25. 서울순천향병원에서 별세(63세)  
 1975. 2. 26.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1975년 2월 22일 省谷은 그룹 일행과 함께 백운대 등반에 올랐다가 하산길에서는 잔설에 실족하고 3미터나 되는 낭떠러지 아래로 굴려 떨어지기도 했다. 일행은 놀랐지만 그는 이렇게 큰 소리를 쳤다. “자비들도 유도를 배우라구. 이런 때 나처럼 유도의 낙법을 이용할 수 있단 말야 하하...” 이와 같이 省谷은 타계하기 직전까지 體育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고, 그것이 開拓者的 정신을 발휘하고 사회의 지탄을 받지 않는 大企業家로서 깨끗한 일생을 보내게 했던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본다.

## V. 結論

한 나라의 經濟발전과정은 그 나라 企業의 성장과정이며, 기업성장의 승패는 그 나라 경제발전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省谷이 경영하던 小企業이 오늘날 대 쌍용 그룹으로 성장·발전한 것은 오직 省谷의 중후한 人格과 體育으로 단련된 불굴의 투지, 그리고 끈질긴 집념의 결실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省谷은 企業家·政治家·言論人·體育人으로서 초인간적인 노력을 하였는데, 그 저력은 강한 체력에서 나왔으며, 그 體力과 精神力은 體育에 의하여 다져졌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省谷은 한국체육진흥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慶北體育會 會長職을 수년 역임 하면서 경북체육의 중흥을 가져 왔다.

2. 大韓柔道聯盟 會長職을 역임하면서 한국유도의 육성 발전에 기여 했다.

3. 大韓體育會 고문직을 역임하면서 韓國體育發展에 기여했다.

4. 아세아 끌프연맹 회장직을 역임하면서 끌프발전에 기여했다.

대한체육회와 경북체육회에 대한 省谷의 공적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거기에 끗지 않게 유도부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오늘날 한국의 유도수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되었다.

省谷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인격적으로 승화되었으며, 企業倫理면에 있어서도 대기업의 모범이 되었다. 오늘날 教育에서 知育·德育·體育의 조화가 강조되고 있고,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체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하나의 理念으로 삼고 있는데, 省谷의 事例는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參 考 文 獻

1. 金敎植, 韓國財閥『成龍一金成坤』, 서울, 粟谷文化社, 1986.
2. 전범성 『金成坤一成龍傳記』, 서울, 서문당, 1984.
3. 省谷傳記刊行委員會編, 『별일 없제一省谷 金成坤先生 逸話集』, 서울, 코리아 헤럴드, 1985.
4. 배정행 「運動과 健康」, 『琵瑟』 제13집, 啓明專門大學, 1984.
5. 大學體育教材編纂會編, 『大學體育』, 大邱大學校出版部, 1983.
6. 金柄夏, 大邱經營史研究會 創立趣旨文, 1986.
7. 박인호 「향토서 자란 대기업一成龍그룹」, 『대구매일신문』, 1985. 7. 24 ~25, 6면.
8. 大韓柔道會・雙龍그룹, 제1회 省谷旗爭奪 全國柔道大會, 프로그램, 대구 실내체육관, 1976.
9. 大韓柔道會・雙龍그룹, 제11회 省谷旗爭奪 全國柔道大會, 프로그램, 대구 실내체육관, 1986.

(襄守鎮·啓明專門大學 副教授)

## 轉換期 銀行經營의 社會經濟史的 考察

高 承 濟

### ◇ 目 次 ◇

- |                  |                |
|------------------|----------------|
| I. 序 言           | IV. 第一銀行의 人事動向 |
| II. 韓國商業銀行의 人事動向 | V. 韓一銀行의 人事動向  |
| III. 朝興銀行의 人事動向  | VI. 結 言        |

### I. 序 言

여기서 轉換期라고 함은 8·15 解放에서 50年代末을 意味한다. 이期間에 韓國商業銀行, 朝興銀行, 第一銀行, 韓一銀行 等의 銀行長을 비롯한 基幹要員을 어떻게 充當했는가. 銀行마다 그 方式이 달랐기 때문에 그것이 그 銀行의 最大特徵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와 같은 人事動向이 經營에 미치는 効果를 分析하기로 한다.

### II. 韓國商業銀行의 人事動向

첫째로 1899年 1月에 設立된 韓國商業銀行의 人事動向을 살피기로 하겠다. 그런데 이 銀行은 大韓天一銀行으로 1899年에 設立되었다. 大韓天一銀行은 初代銀行長에 閔丙奭이 취임하였고, 2代 銀行長에는 英親王이 就任하여 4年 3個月 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

3代 銀行長 代辦에는 金基永이 취임하였다. 金基永이가 자리잡았

면 銀行長 代辦이란 무슨 뜻인가. 英親王이 지니었던 銀行長으로서의 權威를 그냥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金基永은 銀行長 代辦이라고 불렸던 것이다. 金基永도 正三品의 官等을 지니고 있었으나 商人임에 틀림이 없었다.<sup>1)</sup>

宮内部大臣을 歷任한 閔丙奭이 初代銀行長을 지냈으며 英親王이 몸소 銀行長으로 있었던 사실은 王室勢力を 드높일려는 意圖가 엿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事實이 일찌기 日本人의 經營干涉을 받게 되는 祸根이었다. 그리하여 藤川和三郎이 監理者로任命되었으며 漢城倉庫株式會社와 合同한 結果 飯泉幹太가 常任監理者로任命되었다.

1911年 6月 11日에 大韓天一銀行은 商號를 朝鮮商業銀行으로 고치고 趙鎮泰가 銀行長에 就任하였다. 商人の 時代가 열린 셈이다. 趙鎮泰는 大昌貿易 監查役을 비롯한 商業活動에 널리 참여한 代表的 實業家이다. 12年 동안 銀行長을 지냈다. 趙鎮泰가 銀行長을 지내는 동안에 세운 業績으로 1923年 6月에 元山商業銀行과 合併한 事實을 들 수 있다.

1924年 8月에 和田一郎이 銀行長이 됨에 따라 趙鎮泰는 副頭取에 내려앉아 1923年 6月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1924年 6月에 朝鮮實業銀行과 合併하였다. 또한 1925年 8月에 大同銀行과 合併하였다. 이어 1928年 6월에는 三南銀行과 合併하였다.

그런데 三南銀行과의 合併에 있어 한 가지 特記할 事實이 있다. 三南銀行의 設立者 朴基順의 長男 朴榮喆이가 副頭取로 就任하였다. 朴榮喆은 1931年 1月에 頭取로 升進하여 8年 1個月동안을 지냈다.

1933年 6월에는 北鮮商業銀行과 合併하였으며 1935年 6월에는 釜山商業銀行을 買收하였다. 또한 1941年 9월에는 大邱商工銀行을 買收하였다.<sup>2)</sup>

1) 申判國編『大韓天一銀行公牒存案解說』, 1960年, 18~20면.

2) 林錫春編『韓國商業銀行七十年史』, 1969年 1月, 69~82면.

이처럼 朝鮮商業銀行은 元山商業銀行과 北鮮商業銀行을 咸鏡南北道에 걸친 店舖들을 가지게 되었으며 大同銀行을 合併함으로써 平安道地方의 銀行들을 買收하고 慶尚南北道에 店舖들을支配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三南銀行과의 合併에 있어 朴榮喆이 頭取가 되는條件이 붙었으나 나머지 銀行들은 아무런人事關係의 制約 없이合併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렇게하여 朝鮮商業銀行은 合併 내지 買收하는 方法을 거쳐서 支店 54個所와 出張所 9個所 등 63個所에 달하는 廣大한 店舖網을 갖게 되었다.

朴榮喆이 作故하자 日本人 据正一이가 專務로 있다가 바로 頭取가 되었다. 그런데 常務取締役으로 있던 金鎮玉이 身病으로 辭任하였다. 金鎮玉은 1881年 11月에 태어난 사람으로 일찌기 朝鮮商業銀行에 入行하여 1924年 8月에 常務取締役이 되었으니 16年 3개월 동안 그 자리를 지켰다. 그런데 金鎮玉이 사임함에 따라 韓國人 重役은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1945年 10月에 尹暉炳이가 韓國商業銀行의 頭取가 되었다. 尹暉炳은 京畿道 사람으로 1891年 4月에 태어났다. 1915年에 東京高等商業學校를 卒業하고 朝鮮銀行에 入行하였다. 1922年 3月에 慶一銀行의 取締役 支配人을 거쳐 1923年 1月에 韓一銀行에 入行하여 業務課長과 庶務課長을 歷任하였고 東一銀行으로 商號가 바뀜에 따라 取締役 겸 支配人으로 있었다.<sup>3)</sup> 就任한지 1년이 되어서 美軍政府財務部長으로 轉出하였다. 1948年 10月에 다시 銀行長으로 就任하여 1954年 10月까지 6년간을 지냈다.

尹暉炳이 美軍政府財務部長으로 轉出한 1년 11개월동안 頭取로 지냈던 사람은 李鍾泰이다. 李鍾泰는 1945年 1月에 監查役으로 升進하였으며 解放後에는 專務取締役이 되었다. 尹暉炳이 다시 銀行長으로 돌아오자 取締役으로 물러났다. 李鍾泰에 관해서는 아무런 參考資料도 없다.

---

3) 貴田忠衛編, 『朝朝人事與信錄』, 52~53면.

1953年 12月에 安命煥이 銀行長이 되었다. 安命煥은 1901年 10月에 탄생하였으며 학력은 普通學校에 그치었다. 1950年 7月에 韓國銀行의 監督部長으로 있다가 韓國商業銀行의 銀行長이 되었다. 1957年 1月에 사임하고 瑞麟化學株式會社의 社長이 되었던 사람이다.

1957年 1月에 銀行長에 취임한 申判國은 1906年 9月에 全南順天에서 탄생하였다. 1939年 日本의 慶應大學을 卒業하였다. 1948年에 韓國銀行의 業務部長이 되었고 1951年에 外國部長이 되었다. 1951年에 韓國銀行 副總裁로 就任하여 1957年 1月에 사임하고 韓國商業銀行의 銀行長에 취임하였다.<sup>4)</sup>

이처럼 1939年 3月에 朴榮喆이가 頭取를 사임한 이래로 韓國商業銀行은 頭取나 銀行長의 人的資源을 外部 得구나 韓國銀行에 依存하여 왔다. 말하자면 專門經營人制度를 일찌기 도입하였다.

이제 尹暉炳 이래로 韓國商業銀行을 經營해 온 환경의 변화를 요약하여 보기로 하겠다. 다만 韓國動亂이 끝난 1953年까지의 動向만을 적어 보기로 한다.

1945年 8月 15일에 太平洋戰爭의 종식으로 韓國은 36년간의 日本統治 羸絆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韓國經濟는 日本植民地政策의 유산으로서 취약한 經濟基盤과 不均衡的인 產業構造를 속명적 인 特質로 이어 받지 않을 수 없었으며 뒤이은 國土分斷의 悲運과 더불어 資源과 施設이 편재한 北韓을 遺失함으로써 그 跛行的인 性格이 더욱 심화되었다.

더욱 8月 15일 解放直後로부터 南韓에 美軍이 進駐하기까지의 2개월간은 政治的 無政府狀態 밑에서 모든 經濟秩序가 紊亂해져 國民經濟는 파탄의 위기에 직면하여 通貨量은 약 倍增되고 物價는 20~25배로騰貴하는 사태를 빚어냈다.

解放 이후의 物價趨勢를 보면 1936年을 100으로 한 서울의 都賣物價指數는 1944年에 241로서 中·日戰爭에서부터 太平洋戰爭의 終末

---

4) 安命煥과 申判國의 經歷에 관하여 韓國商業銀行 人事部에 問議하였다.

1年前까지 만 8개년의 등귀율이 2.4배에 그쳤는데 반하여 解放後 1年이 지난 1946年에는 22,100으로 뛰어올라 1944年 對比 무려 92배나 등귀하였다.

이와 같은 物價暴騰 현상은 매년 격화되어 1947年에는 40,200, 1948年에는 65,500으로 急騰勢를 시현하였다. 이러한 악성 인플레의 결정적 요인은 經濟全般에 걸친 停滯로 財貨供給이 부족한 데에도 그 원인이 있겠으나 이 외에도 막대한 治安維持費와 糧穀收集을 위한 방대한 季節資金의 방출로 말미암아 財政赤字가 누적되었다는 것도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sup>5)</sup>

1949年 4·4분기중에 인플레 역제책의 일환으로 稅制를 정리하여 徵稅方法의 효율화를 기하고 公共料金의 인상으로 세입의 증대를 기하는 한편, ECA 援助 초기부터 적용되던 450圓 대 1弗의 「對充資金換率」을 1949年 11月에 500圓 대 1弗로, 12月에는 600圓 대 1弗로 각각 인상하여 國內通貨環收策의 강화를 기하였다.

1947年을 100으로 한 서울의 都賣物價指數는 1948年에 163으로 연평균 63%가 증가한데 반하여 그 이듬해인 1949年에는 223으로 연평균 37%의 증가를 나타내어 등귀율이 대폭 둔화되었으며 1950年 3月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反落傾向에 있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나라 經濟는 解放後 처음으로 상대적인 中間安定期를 맞이하게 되어 自立經濟의 발판을 마련해 되었으나 突發的인 6·25사변으로 지금까지 구축한 自立에의 기반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다.

1950年 6月부터 1953年 6月에 이르는 3년동안은 우리나라에 있어 서나 當行에 있어서나 일대 수난기였다. 貨幣發行額은 1950年 6月 25日의 558百萬圓으로부터 1953年 7月末에는 13,426百萬圓으로 팽창, 3年 1個月 동안에 약 24倍의 증가를 보였고, 通貨量 역시 약 16배의 증가를 나타내었는데, 이로 인하여 都賣物價指數가 動亂中

5) 林錫春編, 前揭書, 85면.

에 약 18배가 상승하는 惡性 인플레가 초래되었다.

한편 1933年 6月 30日에 9,925,000圓에 이르른 韓國商業銀行의 資本金은 動亂期中에도 동일수준을 유지하였다. 94期(1952年 10月 1日～1953年 3月 31日) 중에 이루어진 第1次通貨金融措置의 결과 94期末에 貸借對照表에 韓國商業銀行의 資本金은 99,250圓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호칭의 切下일뿐 실질적인 減資의 결과는 아니었다. 오히려 當行의 積立金은 6·25動亂 직전인 88期末(1950年 3月 31日) 현재의 5,380,000圓으로부터 動亂期末頃인 94期末(1953年 3月 31日)에는 699,000圓으로 增加하였다는 것이다.<sup>6)</sup>

### III. 朝興銀行의 人事動向

둘째로 1903年 2月에 설립되었던 朝興銀行에서 이루어진 重役人事를 살피고자 한다. 그런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朝興銀行은 漢城銀行을 母體로 이루어진 여러 銀行의 集合體이다. 따라서 漢城銀行系의 重役人事를 먼저 밝히고 나중에 被合併銀行의 重役人事를 개관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朝興銀行의 重役에는 漱城銀行系의 人物뿐만 아니라 被合併銀行들의 人物도 있기 때문이다.

漢城銀行의 行長에는 李載完·李允用·韓相龍·白完赫 등을 거쳐서 1933年 7月에서 1937年 6月까지 張弘植이 취임하였다. 張弘植은 1882年 10月에 서울에서 出生하여 東京高等商業學校를 졸업하고 1909年에 귀국하여 漱城銀行에 入行하였다. 張弘植은 庶務課長에서 支配人 代理를 거쳐 釜山支店 支配人에 이르렀고 本店 支配人을 역임하고 1920年 2月에 取締役이 되었던 사람이다.<sup>7)</sup>

張弘植의 뒤를 이어 漱城銀行의 頭取자리는 日本人들이 獨占하여 왔다. 그러던 것이 1943年 10月에 이르러 閔奎植이가 取締役會長이

6) 林錫春編, 前揭書, 118면.

7) 朝鮮中央經濟會, 『京城市民名鑑』, 1921年, 72면.

되었다. 그러나 頭取의 자리는 여전히 日本人이 차지하였다. 그러면 이 때에 取締役 會長으로 閔奎植이를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일까. 漢城銀行은 湖西銀行을 1931年 1月에 合併하였으며 大邱銀行과 慶南銀行이 합친 慶尚合同銀行을 1941年 9月에 合併하였다. 東萊銀行을 1933年 7月에 合併하였으며 東一銀行을 1943年 9月에 合併하였다. 東一銀行의 전신이 韓一銀行으로 趙秉澤·鄭東植 등의 鐘路商人層이 發起하여 설립된 銀行이다.<sup>8)</sup> 1931年 10月에 이르러 商號를 東一銀行으로 變更하고 閔氏가 經營을 전담하였다. 閔氏 문중의 支配體系는 閔泳徵의 令息인 閔大植과 閔奎植에게 양분되어 있었다. 東一銀行은 발전을 거듭하여 朝鮮商業銀行이나 漢城銀行에 비하여 손색이 없었다. 따라서 東一銀行과 漢城銀行의 合併은 5分 5分이었다.<sup>9)</sup> 드디어 1943年 9月에 朝興銀行이라는 새 商號 밑에 漢城銀行과 東一銀行은 合併하게 되었다. 그리고 앞에서 보는대로 閔奎植이 取締役 會長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

閔奎植은 1888年 9月에 탄생하였으며 1918年 6月에는 英國의 캠브리지 大學을 수료하고 이듬해 美國 존 호킨스 大學에서 修學하였다. 귀국하여 1920年 8月에 韓一銀行의 業務取締役이 되었으며 1936年 7月에 東一銀行의 代表 取締役이 되었다. 1943年 10月에 朝興銀行의 取締役이 되었으며 1945年 11月에는 銀行長으로 승진하였다.

閔奎植은 1945年 11月에 取締役 會長制度가 폐지됨에 따라 取締役이 되어 1949年 4月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같은 날 자에 閔大植의 長子인 閔丙燾가 閔氏 문중을 대표하여 取締役에 취임하였다. 閔丙燾는 1956年 10月에 專務取締役으로 승진하였다.

한편 頭取는 1943年 10月에 大邱銀行으로부터 朝興銀行의 常務取締役이 되었던 鄭雲用이 銀行長으로 승진하였다. 鄭雲用은 大邱銀

8) 韓翼敎編, 『韓相龍君を語る』, 1941年, 145면.

9) 朝鮮銀行調查部, 1949年 『經濟年鑑』, 「韓國金融機關發達略史」, 11—45면.

行의 設立者이며 慶尚合同銀行의 頭取인 鄭在學의 長孫으로 1903年 3月에 탄생하였다. 1924年 3月에 明治大學 法學部를 졸업하였다. 1929年 6月부터 慶尚合同銀行에서 業務課長으로 지냈다. 1934年 7月에 取締役이 되었으며 1940年 4月에 鄭在學이 별세함에 따라 頭取가 되었던 사람이다. 鄭雲用은 1947年 10月까지 朝興銀行의 頭取를 지냈다.<sup>10)</sup>

1947年 11月에는 金漢奎가 朝興銀行 頭取로 취임하였다. 金漢奎는 1877년에 서울에서 탄생한 사람으로 中樞院 副贊議 등을 역임한 후에 實業界에 轉向하였다. 廣藏會社의 社長을 비롯하여 韓一銀行의 專務取締役을 역임한 사람이다.<sup>11)</sup> 1949年 4月에 頭取의 자리에서 물러났으나 鐘路商人의 세력을 대변하였다는 것이 金漢奎 頭取의 특징이라 할 것이다. 1949年 4月에는 金教哲이 頭取로 임명되었다. 金教哲은 1894年 11月에 서울에서 출생하여 1916年 3月에 東京高等商業學校를 졸업했다. 졸업과同時に 朝鮮銀行에 入行하여 1925년 까지 勤務하다가 韓一銀行으로 옮겨 갔다. 1943年 10月에 朝興銀行의 설립과 더불어 그 곳으로 옮겨 갔다. 1946年 11月에 朝興銀行을 사임하고 相互銀行의 常務取締役으로 轉出하였다가 다시 1947年 11月에 朝興銀行으로 복귀하여 專務取締役이 되었다. 1년 5개월 후에 頭取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1956年 10月까지 7년 6개월동안 頭取를 지냈다. 그런데 1955年 12月부터 頭取의 호칭 대신에 銀行長으로 부르게 되었다.<sup>12)</sup>

1956年 10月에 大邱銀行～慶尚合同銀行에서 轉出해 온 鄭宗源이 銀行長에 취임하였다. 鄭宗源은 鄭在學의 3男으로 1895年 5月에 출생하여 1918年 3月에 日本大學 法學部 專門部를 마쳤다. 졸업하자 畢業로 취직하여 1927年 8月까지 근무하였다. 그 후 地方行政에 진출하여 1941年 7月에는 宣川郡守가 되었다가 해방을 맞이하였다.

10) 朝興銀行編, 『朝興銀行 80年史』, 1977年, 452면.

11) 有馬純吉編, 『朝鮮紳士錄』, 1931年, 127면.

12) 朝興銀行史料調查課에 問議하였다.

1945年에 朝興銀行에 취직 하여 1948年 11月에서 1952年 10月까지 常務取締役으로 있다가 1952年 10月에서 1956年 10月까지 專務取締役이 되었다. 다시 1956年 10月에서 1961年 4月까지 銀行長으로 있었다. 그러면 朝興銀行의 역사에서 頭取 또는 銀行長이 그 系譜에 있어 漢城銀行系보다 被統合銀行系의 人物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1928年 3月에 韓相龍이가 頭取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漢城銀行의 실권은日本人의 수중에 들어 갔으나 漱城銀行이 지녀오던 貴族銀行이라는 전통은 허물어지고 말았다. 漱城銀行의 初代行長으로 3年 9개월 동안 銀行長 자리에 있었던 李載完은 韓國貴族의 1號로 興完君 李最應의 아들이다. 또한 1909年 7月에 漱城銀行의 頭取로 就任하여 1923年 1月까지 13년 6개월 동안 頭取의 자리에 머물렀던 李允用은 大院君의 女息이고 高宗의 妹婿이다. 더구나 李允用은 李完用의 弟으로 알려진 사람이다.

또한 漱城銀行의 設立委員이며 右總務로 있었으며 1914年부터 專務取締役으로 있었던 韓相龍은 1880年에 奎章閣提學 韓觀洙의 3男으로 태어났으며 李完用의 外孫이다. 이처럼 漱城銀行은 오랫동안 貴族이 運營의 責任者였기 때문에 어느새 貴族銀行이라는 別名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重役名單에는 趙重應 · 金宗漢 · 閔泳徽 · 韓昌洙 · 閔泳綺 · 李海昌 등의 貴族이 取締役이나 監查役의 名單에 들어 있었다. 그런데 韩相龍이가 1928年 3月에 漱城銀行의 頭取에서 물러나자 이들도 그만두었다. 그리고 一般職員도 韩相龍이가 朝鮮生命株式會社의 社長이 됨에 따라 그 곳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리하여 漱城銀行은 朝興銀行誕生의 主體였음에도 불구하고 解放後의 銀行長人事에 한 사람도 참여할 수 없었다.

銀行長人事에만 이런 경향이 나타났던 것은 아니다. 專務取締役의 人事에 있어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1945年 11月에 金

信錫이 專務取締役이 되었다. 金信錫은 1896年 9月에 태어난 慶尚南道 사람으로 1914年 3月부터 朝鮮銀行에 入行하여 計算課主任이 되었다. 1922年에 湖南銀行에 옮겨가서 本店支配人이 되었다. 그리고 1926年에 取締役이 되었으며 1930年부터 專務取締役이 되었던 사람이다.<sup>13)</sup>

다만 李東九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李東九는 1919年 9月에 漢城銀行에 入行하였다. 그리하여 1945年 11月에 常務取締役이 되었다. 3年 5개월 후에 專務取締役으로 승진하였으나 6개월 후에 그만 두고 取締役의 자리에 옮겨가서 2年 5개월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李東九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專務取締役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다만 6개월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할 수 밖에 없다. 이제 1953年 7月의 休戰에서 1959年末을 戰爭再建期라고 하면 그 동안의 經濟動態는 어떠하였는가. 美國援助 200百萬弗의 公表와 더불어 戰災復舊와 惡性 인플레의 수습에 經濟政策의 2대 목표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1956年末까지 通貨量이 563.5%로 增加하여 연 평균 50%의 物價上昇을 막을 수가 없었다.

1957年을 分歧點으로 하여 韓國經濟는 安定基調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休戰後의 再建期를 통하여 友邦의 經濟援助가 本軌道에 올랐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戰災復舊事業이 거의 완수되고 惡性 인플레도 점차 그 추세가 완만하여졌다. 더구나 1955年 8月의 單一變動換率制度의 설정과 더불어 모든 經濟政策의 초점이 單一外換率의 유지에 집중되었다. 더구나 1957年에 들어서면서부터는 韓美合同經濟委員會에서 처음으로 通貨膨脹의 억제를 목표로 한 財政安定計劃을 수립하여 經濟政策의 基本目標가 通貨價值의 安定과 單一外換率의 유지에 집중되고 모든 產業經濟活動이 그 원칙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57年과 1958年을 피이크로 하는 美國援助의 증가에 크게 힘입으면서 安定과 成長

13) 貴田忠衛編, 『朝鮮人事與信錄』, 1935年, 145면.

을 이루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가령 通貨量의 증가를 보면 1956年末에서 1960年 3월 말 사이에 74.5%에 머물렀다. 1953年에서 1956年末에 563.5%로 증가하였던事例에 비추어 본다면 그 鈍化率이 현저함을 알 수가 있다. 一般物價도 같은 기간 동안에 18.0%로 上昇하였으며, 鑛工業生產도 年平均 12.3%의 성장을 보였다. 한편 實質國民總生產은 1957年에 8.8%였으며 1958年과 1959年에 각각 5.5%와 4.4%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戰後의 後半期에 들어서 착실한 安定勢를 보였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 아래에서 朝興銀行의 營業實績은 어떠하였는가. 韓國動亂에서 1952年末까지 赤字決算을 면치 못하였다. 1953年 9月末에는 休戰과 함께 營業店舗의 機能回復으로 6,104千圓의當期純益을 내게 되어 移越缺損金을 補償하고도 336千圓의 利益金을 計上하게 되었다. 또한 1955年 3월 말에는 3,287千圓의 利益金을 計上하였으며 1955年 9월 말에도 前期實績의 7倍가 넘는 22,098千圓의 利益金이 計上되었다. 1959年 3月末에는 466,020千圓으로 前期에 對比하여 7배의 利益金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朝興銀行의 損益事情의 급격한 호전으로 말미암아 한동안 중단되었던 株主配當도 1955年 9월 말부터 실현을 보게 되었다. 1955年과 1956年 3月에는 年 200배의 配當이 實現되었으며 1957年 3月에는 年 800배의 配當이 있었다. 1958年 3月과 1959年 3月에는 각각 年 1,000배의 配當이 있었다고 한다.<sup>14)</sup>

#### IV. 第一銀行의 人事動向

朝鮮總督府의 金庫로 役割하였던 朝鮮殖產銀行은 加重하는 財源을 보충하고자 일반대중의 영세자금을 預金化하기 위하여 1928年 12月 24日에 朝鮮總督府로 하여금 貯蓄銀行令을 公表도록 하였다.

14) 朝興銀行編, 前揭書, 299면.

1929年 6月 27日에 朝鮮殖產銀行의 本店 會議室에서 朝鮮貯蓄銀行의 創立總會가 開催되었다. 그리하여 朝鮮殖產銀行의 頭取인 有賀光農이 朝鮮貯蓄銀行의 頭取를 擁임하였다.

초창기의 株主構成을 보면 朝鮮殖產銀行을 비롯한 團體株主가 13個團體인데 韓一銀行이 유일하게 朝鮮人 團體였다. 그리고 個人株主로 日本人 株主가 40,069株를 소유하였으며, 韓國人 株主는 4,734株를 소유할 뿐이었다. 朝鮮人 株主中의 著名者를 추려 본다면 金季洙, 閔大植, 李恒九 등이 들어 있었다.

重役陳의 구성을 본다면 頭取 1名, 專務取締役 1名, 常務取締役 1名, 取締役 2名, 監查役 3名이었다. 그런데 韓國人 重役으로는 監查役 1名이 配定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人事方針은 解放이 될 때까지 堅持되었다. 韓國人 監查役으로는 金季洙가 1927年 7月에서 1942年 12月까지 6차례의 重任을 거듭하였다. 金季洙는 1896年 8月에 태어나서 1925年 4月에 京都帝國大學의 經濟學部를 卒業하였다. 1928年 4月에 京城紡織株式會社의 專務取締役이 되었다. 한편 1927年 8月에는 1920年 6月에 尹德榮이 설립한 海東銀行의 經營權을 引受 받아 代表取締役이 되었다. 海東銀行은 다른 銀行에 비하여 규모가 작아서 손색이 많았는지라 1938年 1月에 그 銀行 業務를 漢城銀行에 讓渡하고 말았다.<sup>15)</sup> 어쨌든 이러한 經歷으로 미루어 보아 金季洙가 銀行의 監查役이 되기에 적합하였다고 할 수가 있다.

金季洙의 뒤를 이어 監查役의 자리를 차지한 韓國人은 李丙吉이 있다. 李丙吉은 李恒九의 長男으로 태어났다. 李丙吉의 祖父는 李完用이다. 李完用은 李升九와 李恒九의 두 아들이 있었으나 李升九가 일찌기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李丙吉이 養子가 되었다. 이러한 관계로 李完용에게 있어 李丙吉이는 귀중한 존재일 수 밖에 없었다. 李丙吉이와 그 두 동생은 東京 學習院에 다녔으며 李丙吉이는 學習院을 졸업하고 京都帝國大學에 다녔으며 學業을 마친 후에는 宮内

15) 有馬純吉編, 前揭書, 138면.

省式部職에 있었다. 아마 친아버지인 李恒九가 1881年 8月에 탄생하여 1905年에 宮內府秘書監丞으로 임명되었으며 1911年부터 李王職에 轉出되어 李王職次官에 올랐다. 이러한 李恒九의 직업을 계승하는 뜻에서 日本의 宮內省에서 경험을 쌓았을 것이다.<sup>16)</sup> 친아버지인 李恒九의 직업을 계승하려고 日本의 宮內省에서 武府職의 鍛修를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귀국하여 1943年 1月에 金喬洙의 후임으로 監查役에 취임하여 1946年 9月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 日本人重役들과 같이 사임한 것이 1946年 9月 5일이었다.

그러면 朝鮮貯蓄銀行의 設立에서 解放時까지 걸어 온 발자취를 預積金의 動向으로 엿보기로 하겠다. 1929年 12月에 預積金總額이 21,353千圓이던 것이 1935年 12月에는 43,715千圓으로 增加하였으며 1939年 6月에는 75,235千圓으로 증가하였다. 다시 1941年 12月에 164,805千圓이던 것이 1945年 3月에는 422,543圓으로 急增하였다. 이제 朝鮮貯蓄銀行의 設立當時에 殖產銀行으로부터 이어 받은 預積金總額인 19,484千圓을 기준으로 한다면 解放時까지 16년간 배에 가까운 증가를 이룩한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sup>17)</sup> 이처럼 預積金이 急激히 증가한 최대의 이유는 일반대중의 영세자금을 預積金으로 끌어 모았기 때문이다.

解放이 되자 朝鮮貯蓄銀行은 새 頭取에 張弘植을 맞이하였다. 張弘植은 1920年 2月에서 1927年 7月까지 漢城銀行의 取締役으로 있었다. 그런데 漢城銀行에 있어 張弘植은 얼마나 엘리트 重役으로信望을 받아 왔는가를 말하여 주는 事例가 있다. 漢城銀行은 1918年 12月에 東京에다 支店을 냈고 1922年 4月에는 大阪에도 支店을 설치하였다. 그리하여 東京 大阪의 兩支店의 業務監督을 위하여 張弘植을 東京에 駐在시켰다.<sup>18)</sup> 이처럼 張弘植은 國내에 있어서도 本

16) 貴田忠衛編, 前揭書, 524~525면.

17) 李起虎編, 『第一銀行 30年誌』, 1959年, 69~72면.

18) 韓翼敎編, 前揭書, 212면.

支店業務의 監督에 有能한 솜씨를 보였던 것이다.

그리고 1929年 8月에서 1933年 7月까지 漢城銀行의 監查役으로 있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1933年 7月에서 1937年 6月까지 漢城銀行의 取締役會長에 있었다. 1945年 12月에 朝鮮貯蓄銀行의 頭取職을 사임하였다. 그것은 美軍政府의 E. S. Corden이 頭取가 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美國人이 1946年 10月에 사임하자 張弘植이는 다시 朝鮮貯蓄銀行의 頭取로 되돌아 와서 1946年 10月까지 있었다.

張弘植의 뒤를 이어 朝鮮貯蓄銀行의 取締가 된 사람은 權五臣이다. 權石臣은 1892年 2月에 忠南 公州에서 태어났다. 仁川高等普通學校를 마치고 朝鮮貯蓄銀行에 入行한 것이 1936年 4月이었다. 1945年 11月에 取締役이 되었으며 1946年 12月에 頭取가 되었다. 1950年 6月에 사임하고 南鮮電氣株式會社의 社長이 되었다. 그런데 1950年 5月 20일에 商號를 韓國商業銀行으로 變更하였다. 權石臣의 뒤를 이어 金秉兆가 頭取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金秉兆는 1901年 6月에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京城法學專門學校를 졸업하였다. 1921年 4月에 朝鮮殖產銀行에 入行하였으며 解放과 더불어 朝鮮貯蓄銀行으로 轉出하였다. 1945年 11月에 取締役으로 취임하였으며 1946年 12月에는 專務取締役이 되었다. 1950年 6月에는 頭取로 승진하여 1950年 10月까지 있었다.

1950年 10月에는 俞燦이가 銀行長으로 취임하였다. 俞燦은 1909年 9月에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京城法學專門學校를 졸업하였다. 俞燦의 經歷에 대하여서는 아는바가 없고 다만 1950年 10月에서 1955年 12月까지 韓國貯蓄銀行의 銀行長으로 있었음이 알리어져 있을 뿐이다.

俞燦의 뒤를 이어 韓國貯蓄銀行의 銀行長이 된 사람은 朴璣熙이다. 朴璣熙는 1909年 7月에 大邱에서 태어났으며 日本 大分高等商業學校를 졸업하였다. 1934年 4月에 朝鮮銀行에 入行하였으며 1950

年 12月에 韓國銀行의 副總裁로 升進하였다.

이 무렵에 韓國銀行의 行員들은 200名 가까이 他銀行의 補充要員으로 派出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當時의 韓國銀行의 總裁인 具鎔書는 朴璣熙를 불러가지고 「너 내 말 듣지 않을래」 해서 무슨 말인가 하고 물었다. 들을만 하면 듣지 안들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비로소 韓國貯蓄銀行의 銀行長으로 가라는 것이다.<sup>19)</sup>

1954年 3月에서 1955年 12月까지 韓國銀行의 首席副總裁로 지낸 朴璣熙가 1955年 12月에 韓國貯蓄銀行의 銀行長에 취임하였다. 1956年 12月에 韓國貯蓄銀行의 銀行長을 사임한 朴璣熙는 바로 韓國農業銀行의 銀行長으로 轉出되었다.

1957年 1月에는 卞奎晃이가 韓國貯蓄銀行의 銀行長에 취임하였다. 1958年 11月 20일에는 오랫동안 念願해 오던 商號의 变경이 이루어져서 韓國貯蓄銀行은 第一銀行으로 变경되었다. 卞奎晃은 1900年 12月에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日本의 山口高等商業學校를 졸업하였다. 졸업과 동시에 朝鮮銀行에 入行하였으며 1951年 10月에서 1953年 4月까지 韓國商工銀行의 取締役이 되었다. 1955年 1月에서 1957年 1月까지 韓國銀行의 監督部長으로 있다가 韓國貯蓄銀行의 銀行長에 취임하였던 것이다. 1959年 4月에 第一銀行의 銀行長職을 사임하였다.

1959年 4月에 李起虎가 第一銀行의 銀行長에 취임하였다. 李起虎는 1904年 11月에 京畿道의 利川에서 태어났으며 第一高等普通學校를 졸업하였다. 1946年 2月에 朝鮮貯蓄銀行에 入行하여 1954年 10月에는 韓國貯蓄銀行의 取締役이 되었다. 1955年 11月에는 常務取締役이 되었다. 다시 1956年 10月에는 專務取締役으로 승진하여 1959年 4月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 1959年 4月에 銀行長으로 승진

19) 金鎮炯 對 朴璣熙 對談, 「잃어버렸든 金融野史」(3), 『銀行界』, 1967年 7月 45면.

하였으니 第一銀行은 비로소 처음으로 自體의 人的資源으로 銀行長職을 충당할 수가 있게 되었다.

다음에 銀行長이 된 사람은 鄭坤秀인데 1899年 1月에 慶北 大邱에서 태어났다. 日本의 九州帝國大學을 졸업하였다. 그의 略歷은 알 수가 없으나 第一銀行의 出身者는 아니다.

그 다음에 銀行長이 된 사람은 閔丙燾이다. 閔丙燾는 1900年 9월에 태어난 사람으로 慶應大學 法學部를 졸업하였다. 1938年に 東一銀行에 入行하였으며 1952年 10月에서 1956年 10月까지 朝興銀行의 常務取締役을 지냈다. 1956年 10月에서 1958年 10月까지 朝興銀行의 專務取締役에 되었다. 1959年 7月에서 1960年 6月까지 商業銀行의 專務取締役이 되었으며 1960年 5月에서 1961年 6月까지 韓國銀行副總裁를 지냈다. 그리고 1961年 6月에서 1962年 5月까지 第一銀行의 銀行長을 취임하였다. 또한 1962年 5月에서 1963年 6月까지 韓國銀行의 7代 總裁를 지내기도 했다.<sup>20)</sup>

朝鮮貯蓄銀行은 一般庶民層을 상대로 하여 貯蓄預金業務를 전담하는 特殊金融機關으로 발족했으나 8·15解放後에 1946年 4月 1일을 기하여 一般銀行業을 營爲하여 왔다. 一般銀行으로 轉換한 후에 業務의 伸張과 經營의 개선 및 店舗網의 擴充에 주력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數次에 걸쳐서 韓國殖產銀行으로부터 22個所에 달하는 店舗와 韓國商業銀行의 職員 811名을 繼承하였다. 그리하여 韓國貯蓄銀行은 그 經營規模에서나 業務의 比重面에서 一般銀行中의 頂上位置를 차지하였다.

1940년 下半期 이후 一般銀行中에서 首位의 업적을 과시한 第一銀行은 60年代末인 1969年 3月에 이르러서도 資本金 40億원, 店舗數 67個所, 總預金 68,437百萬원, 貸出金 50,661百萬원으로 他銀行들의 추종을 불허하는 업적을 쌓아 올리고 있다.<sup>21)</sup>

20) 權石臣, 金秉兆, 俞瑟燦, 朴璣熙, 丁起晃, 李起虎, 鄭坤秀, 閔丙燾의 略歷은 第一銀行의 人事部에서 探問하였다.

21) 朴魯聖編, 『제일은행 40년지』, 1969年, 116면과 383면.

## V. 韓一銀行의 人事動向

韓國信託銀行과 韓國商工銀行이 合併한 것이 1954年 10月 1일이다. 그런데 商號를 처음에는 韓國興業銀行으로 하였다. 이 商號 밑에서 5年間 營業을 계속하다가 1959年 11月 21일에 商號를 韓一銀行으로 變更하였다.

朝鮮信託銀行은 1945年 10月 15일에 朝鮮信託株式會社를 母體로 하여 설립된 銀行이다. 그리고 韓國商工銀行은 1946年 4月 1일에 朝鮮無盡株式會社를 母體로 하여 設立되었다. 다만 처음에는 朝鮮商工銀行이라는 商號를 썼으나 1950年 6月 6일에 韓國商工銀行으로 商號를 变경하였다. 1950年 4月 15일에 朝鮮信託銀行이라는 商號를 韓國信託銀行으로 变경하였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韓國信託銀行의 母體는 朝鮮信託株式會社이고 韓國商工銀行의 母體는 韓國無盡株式會社이다. 朝鮮無盡株式會社는 1937年 8月 14일에 설립된 朝鮮中央無盡株式會社가 母體가 되어 1942年 8月 1일에 全國의 無盡會社들을 通合하여 商號를 朝鮮無盡株式會社로 바꾼 것이다.

朝鮮信託株式會社는 1932年 12月 16일에 설립 되었다. 그런데 漢城銀行의 專務取締役으로 있었던 韓相龍이가 1919年부터 野心스럽게 추진하여 온 計劃이 바로 信託銀行 設立이었다. 이제 信託銀行의 설립을 둘러싼 韩相龍의 비극을 간단히 적어 보기로 하겠다. 드디어 이 信託銀行 설립계획이 막바지로 무르익어 간 것은 1931年 6月에 宇垣一成이가 朝鮮總督으로 부임한 연후이었다. 1931年 6月 9일에 朝鮮信託令이 시행 되었기 때문이다. 韩相龍은 8月 4일에 宇垣總督을 만나서 자기가 오랫동안 信託會社의 설립을 추진해 왔음을 이야기 하였다. 그 자리에서 韩相龍은 宇垣總督과 같이 東京에 가서 關係要路의 諒解를 얻도록 하라는 언약을 받았다. 이 計劃에 따

라서 韓相龍은 10月 28일부터 다음 달 12月 29일까지 하루에 3名 가량의 政界와 財界의 要人們을 방문하였다. 東京에서 韩相龍을 만난 宇垣總督은 韩相龍이를 社長으로 앉히고 日本人을 專務取締役으로 앉히는 계획을 말하였다. 다음 해에 접어들어 會社名을 朝鮮信託會社로 한다는 方針이 決定되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韓國側의 日本人財界要人們이 韩相龍의 社長就任을 反對하고 나섰다.

韓相龍은 8月 6일에 加藤 朝鮮銀行 總裁를 만나서 社長이 아니고 取締役會長의 취임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8月 9일에는 宇垣總督를 만났더니 社長에는 주위의 반대가 있으므로 取締役會長에 취임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韩相龍의 생각으로는 표면으로 韓國人社長을 세우고 日本人專務가 内面으로 社務를 통솔하면 된다고 믿었다. 社長就任이 어렵다고 판단한 韩相龍은 信託銀行設立에 참여하는 것을 중단하고 日本에 移舎하여 유유자적하면서 여생을 보낼 것을 家族會議에서 결의하였다. 그러나 日本人들의 계획에 휘말려 取締役會長에 취임할 수 밖에 없었다.<sup>22)</sup>

韓相龍은 1932年 12月 16일에 朝鮮信託株式會社의 取締役會長에 취임하여 1945年 10月 31일에 日本人重役들과 같이 會長職에서 물러났다. 자기가 그 창립을 계획했으나 드디어 社長자리에 앉아 보지 못하였다.

解放이 되자 代表取締役社長에 金漢奎가 취임하였다. 金漢奎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漢城英語學校를 마치고 中學校敎官 등을 역임한 후에 中樞院副贊議가 되었으나 나중에 생각을 달리하여 實業界에 투신한 사람이다. 金漢奎는 廣藏會社의 社長을 비롯하여 京城隆興會社의 監查役, 京城家畜會社의 取締役, 朝鮮生命保險會社의 監查役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1911年 7月에서부터 1915年 5月까지 朝鮮商業銀行의 監查役을 지냈으며 1915年 4月에서 1918年 4月까지 朝鮮商業銀行의 取締役이 되었다. 또한 1932年 12月 이래로 取締役

22) 韓翼敎編, 前揭書, 334~347면과 355~356면.

과 監查役을 번갈아 맡으면서 解放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때에 金漢奎야말로 實業人이면서 金融界에 정통한 人物이기 때문에 初代의 朝鮮信託銀行長이 되었던 것이다.<sup>23)</sup>

金漢奎는 1947年 12月 2일에 韓國信託銀行의 頭取職을 그만 두었다. 그것은 같은 날짜에 朝興銀行頭取로 轉出되었기 때문이다. 역시 韓一銀行의 專務取締役으로 在職하였을 무렵에 그가 지니고 있었던 탁월한 經營能力이 평가되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1947年 12月에는 吳緯泳이가 2代 信託銀行長에 취임하였다. 吳緯泳은 1892年 5月에 태어난 사람으로 1924年 4月에 神戶高等商業學校를 마쳤다. 일찌기 金融組合에 들어가서 1929年에는 草溪金融組合의 理事が 되었다.<sup>24)</sup> 解放이 되자 韓國信託銀行에 들어 와서 取締役이 되었다. 1950年 6月에 韓國信託銀行의 頭取를 그만두고 國會에 進出하였다.

1950年 6月 27일에 3代頭取 許敏洙가 취임하였다. 許敏洙는 1899年 11月 탄생하였으며 東京商科大學을 졸업하였다. 졸업 후에 朝鮮銀行에 入行하였으며 首席副總裁로 있다가 頭取로 轉出하였던 것이다.

韓國信託銀行의 마지막 頭取는 韓弼濟였다. 韩弼濟는 1901年 6月에 탄생하여 東京帝大 法學部를 마치고 朝鮮殖產銀行에 入行하였다. 殖產銀行의 副總裁로 있다가 1953年 4月에 韓國信託銀行의 頭取가 되었다.<sup>25)</sup> 그리고 1961年 1月에는 銀行監督部長에任命되어 1961年 6月까지 근무하였다.

다음에 韓國商工銀行의 두 사람의 銀行長의 經歷을 살피기로 하겠다. 韓國商工銀行은 朝鮮相互銀行으로 발족하였다가 1950年 6月 6일에 韓國相互銀行으로 商號를 고쳤는데 閔圭植이가 처음부터 銀行長에 취임하여 1953年 4月까지 계속하였다.

23) 貴用忠衛編, 前揭書, 137면.

24) 有馬純吉編, 『朝鮮紳士錄』, 1936年, 154면.

25) 許敏洙와 韩弼濟의 略歷은 韩一銀行人事部에서 탐문하였음.

閔圭植은 1894年 3月에 태어나서 慶應義塾大學 理財科를 졸업하였다. 졸업하자마자 東一銀行에 入行하여 寬勳洞, 西大門, 東大門, 南大門 各支店의 支配人으로 있었으며 元山과 天安支店의 支配人으로 있기도 했다.<sup>26)</sup> 이처럼 閔圭植은 젊은 나이 때부터 銀行經營의 실무를 익혀 왔다. 閔圭植은 解放과 더불어 韓國商工銀行의 銀行長에 취임하여 1953年 4月까지 계속하였다.

한편 李相實에 關하여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다만 1945年 10月부터 1947年 12月까지 韓國信託銀行의 取締役으로 있었다는 사실만 알려지고 있을 뿐이다. 李相實은 1953年 4月에서부터 1954年 10月까지 韓國商工銀行의 銀行長으로 있었다.

이처럼 韓國商工銀行의 銀行長은 品質하다는 인상을 풍기고 있으나 李奎載, 金裕澤, 朴在郁, 郭瀟烈 등이 專務取締役으로 있었다. 또한 崔楠, 金教哲, 安命煥, 金秀學, 朴璣熙, 丁奎晃, 李德鎔 등이 取締役으로 있으면서 銀行의 運營能力を 補強하였다.<sup>27)</sup>

1954年 10月 1일에 朝鮮信託銀行과 韓國商工銀行이 합병하였다. 『韓一銀行四十年史』는 합병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韓國信託銀行이나 韓國商工銀行은 信託業이나 無盡業의 經營으로부터 異質的이라고 할 수 있는 銀行業으로 전환한 만큼 店舗網이 고르지 못하거나 去來處가 品質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新規去來處를 미처 확보하지 못했거나 業務經驗이 미숙하다는 등 허다한 애로점에 부딪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더구나 韓國動亂의 발발로 말미암아 이러한 애로점을 극복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만큼一般銀行에 비하여 현저한 약세를 나타낼 수 밖에 없었다. 이처럼 두 銀行의 自體內에 숨어 있는 취약성들을 극복하고 自生力を 충분히 배양하기 위하여 韓國信託銀行과 韓國商工銀行이 합併의 길을택할 수 밖에 없었다.

26) 貴田忠衛編, 前揭書, 392면.

27) 韓一銀行編, 『韓一銀行四十年史』, 1972年, 650—651면.

더구나 韓國信託銀行의 政府歸屬株가 26%이고 韓國商工銀行의 彙屬株가 65%에 달하고 있었다. 政府는 이처럼 過多한 彙屬株를 保有하고 있었던 만큼 두 銀行의 合併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두 銀行이 合併한 결과로 韓國興業銀行이 탄생되었다. 그리고 初代 銀行長에는 이미 韓國商業銀行의 頭取와 美軍政府의 財務部長을 지냈으며 朝鮮銀行의 總裁를 지낸 바 있는 尹暉炳이 취임하였다. 尹暉炳 行長 밑에 金尚榮이가 專務取締役으로 있었으며 常務取締役에는 李義斗, 鄭坤秀, 權寧仲, 李德鎔, 金秀學 등이 취임하였다.

尹暉炳은 1954年 10月에서 1957年 9月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 2代 銀行長은 李德鎔이다. 李德鎔은 1901年 11月 24일에 태어난 사람으로 京城法學專門을 졸업하였다. 그는 1957年 9月에 취임하여 1960年 10月에 사임하였다. 한 가지 특기할 사실은 1959年 12月 21日에 商號를 韓一銀行으로 變更하였다는 것이다. 이 商號를 이처럼 바꾼 일에 관하여 당시의 財務長官인 李重宰의 말에 따르면 金融界에서 韓國興業銀行이라는 商號를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與論이 뜨겁고 있었다. 한편 政府는 長期產業開發金融을 다루는 韓國產業銀行을 1954年 4月 1일에 설립되었던 만큼 長期開發金融의 인상을 주는 韓國興業銀行이라는 商號를 즉각으로 시정토록 하였다.<sup>28)</sup>

이제 韓國興業銀行 時代의 經營實績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기로 하겠다. 韓國興業銀行의 預貸金은 4大市中銀行 중에서 最下位를 면치 못하였다. 그러던 것이 1955年 9月末에 이르러 預貸金이 거의 倍增하였다. 또한 1959年 9월 말에는 預金總額이 268億圓으로 7배에 이르렀고 貸出金總額은 220億圓으로 急增加하는 追勢를 보였다. 이제 受信面에서 보면 預金增強을 為한 多角的인 노력으로 預金計數는 合併 당시의 3,793萬圓에서 5年이 지난 1959年에는 26,767百

28) 具鎔書 對談, 「잃어버렸든 金融野史」, 47面, 『銀行界』, 1967年 5月號.

萬圓으로 거의 7倍의 증가를 보였다. 한편 같은期間中의預金構成內容을 본다면 設立初期에 要求拂預金이 90%이고 賯蓄性預金이 10%의構成比를 보였다. 그러던 것이 1959年9월말에는 要求拂預金이 70%로 낮아지고 賯蓄性預金이 30%의構成比를 나타내었다.

與信業務의 동향을 보면 預金增加추세에 발맞추어 與信量도 증가를 거듭하였다. 創設當時에 3,575百萬圓에서 59年9月末에는 22,029百萬圓으로 約 6倍의 증가를 보였다. 貸出金構成面에서 본다면 어음貸가 초기에는 80%線을 차지하였다. 그 후 그比重이 70%線으로 낮아졌다. 貸出金의 業種別配分을 보면 製造業部門이 全體의 60%以上을 차지하였고 商業部門이 約 15%를 차지하였다.

韓國興業銀行인자라 信託業務動向을 살피지 않을 수가 없다. 金錢信託은 1959年9月末에 2,153千圓에서 1958年3月末에는 1,624千圓으로 감소하였다. 이와같은 감소추세는 有價證券信託이나 不動產信託에도 나타났다. 그 후 1958年8月에 韓國株式會社의 설립에 자극을 받아 信託業務의 부흥에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동년9월말에 金錢信託은 11,192千圓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1959年3월말에는 108,570千圓으로 급증하였다.

이와 같은 業務動向을 반영하여 銀行計定의 資產負債는 1955年3월말에 8,269百萬圓이던 것이 1959年9월말에는 34,018百萬圓으로 약 4배의 증가를 보았다. 信託計定의 資產·負債도 1955年3月에 10百萬圓이던 것이 1959年9월말에는 91百萬圓으로增加하였다.

한편 韓國興業銀行時代의 營業成績을 보면 1955年3月에서 1959年9月에 이르는 동안에 業績이 신장하여 收入과 支出이 增加勢를 보였다. 純益金은 1,545千圓에서 348,923千圓으로 約 22배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그리하여 韓一銀行으로의 商號變更時까지 5년간의 業績推移를 종합적으로 개관할 수가 있다. 이 時期야말로 韓一銀行의 발전기반을 확고히 한 때로서 業務의 量的擴大뿐만 아니라 質的成長을 이룩한 때라고 할 수가 있다. 總資產規模는 1955年3月의

83億圓에서 1959年 9月에는 340億圓으로 4배 이상의 폭장을 이룩하였던 것이다.<sup>29)</sup>

## VII. 結 言

以上의 概觀에서 보았듯이 解放初期의 金融界를 主導한 사람으로 金漢奎, 張弘植, 尹暉炳 등을 들 수가 있다. 閔丙燾는 上記의 人物들에 비하여 年齡이 다소 낮으나 金融界를 주름잡았던 품이 넓었기 때문에 특별히 고찰의 대상으로 삼아 본 것이다.

이제 解放을 基準삼아 上記 人士들의 年齡을 알아 보기로 하겠다. 金漢奎는 69세이고 張弘植은 64세이다. 그리고 尹暉炳은 55세이고 閔丙燾는 46세였다. 그리고 金融界에서 쌓은 經歷으로 본다면 金漢奎는 朝鮮商業銀行의 監查役과 取締役을 지냈기 때문에 商業銀行系의 人物이라고 할 수 있다. 張弘植은 1920年부터 1937年까지 漢城銀行의 取締役, 監查役을 거쳐 取締役會長이 되었기 때문에 漢城銀行의 人物로 보게 된다. 尹暉炳은 東一銀行의 取締役이었으므로 東一銀行系의 人物로 볼 수 있다. 閔丙燾는 일찌기 東一銀行에 입行하였다가 合併이 되는 바람에 朝興銀行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朝興銀行에서 常務와 專務取締役이 되었으니 朝興銀行系의 人物로 보게 된다.

解放 후에 4名의 金融界 人士가 걸었던 行路를 본다면 金漢奎는 1945年 10月에서 1947年 12月까지 韓國信託銀行의 頭取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1947年 12月에서 1949年 4月까지 朝興銀行의 頭取를 지냈다.

張弘植은 1945年 11月에서 同年 12月까지 朝鮮貯蓄銀行의 頭取에 취임하였으며 美國人이 頭取를 사임하자 다시 頭取에 취임하여 1946年 12月에 그만두었다. 張弘植이 朝鮮貯蓄銀行의 頭取로 있던期間

29) 韓一銀行編, 前揭書, 171—174면.

이 1945年에 1個月間이고 1946年에는 2個月間에 지나지 않았다. 이 것은 무엇 때문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다만 1945年에 64세의 高齡이기 때문인지 모른다.

尹暉炳은 1945年 10月에서 1946年 12月까지 朝鮮商業銀行의 頭取였으며 美軍政府의 財政部長으로 임명되었으며 朝鮮銀行의 總裁를 잠깐 동안 맡은 바도 있었다. 1948年 10月에서 1954年 11月까지 다시 朝鮮商業銀行의 頭取가 되었다. 또한 韓國信託銀行과 韓國商工銀行이 합併하여 韓國興業銀行이 되자 初代銀行長에 취임하였다. 1959年 11月 1일에 서울銀行이 설립되자 初代行長에 취임하였다.

閔丙燾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朝興銀行의 專務, 韓國商業銀行의 專務, 韓國銀行의 首席副總裁를 거쳐 第一銀行의 銀行長과 韓國銀行의 總裁를歷任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인가. 그의 祖父 閔泳徽, 그의 아버지 閔大植과 叔父 閔奎植 등이 이루었던 財產管理 방식이 여러 金融機關에 資金을 分散的으로 預置하였기 때문이다. 閔丙燾가 朝興銀行, 商業銀行, 第一銀行, 韓國銀行 등에 거쳐서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던 것으로 풀이 된다.

(高承濟·學術院會員 및 韓國經濟學會名譽會長)